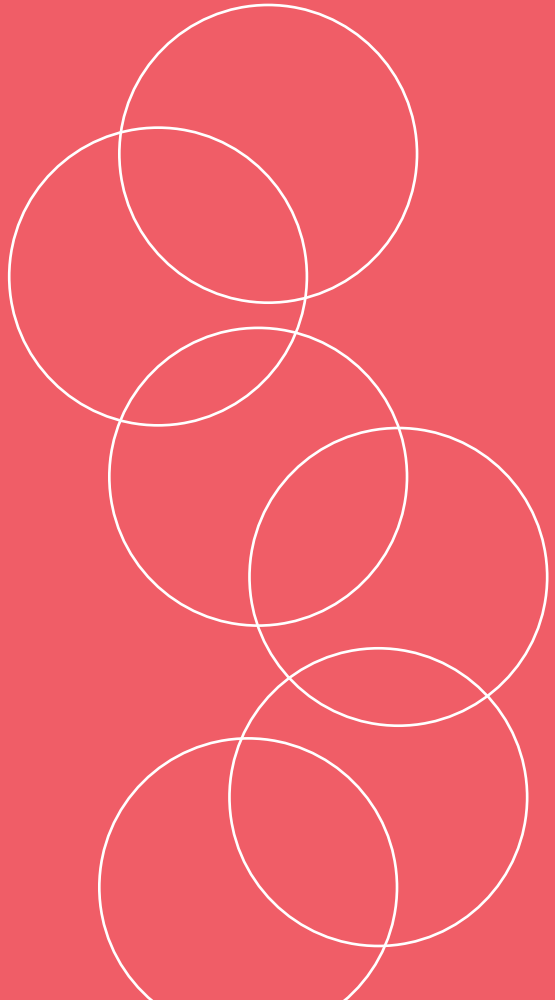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상영사업 사례집

Vol. 2

시민상영활동가 편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상영사업 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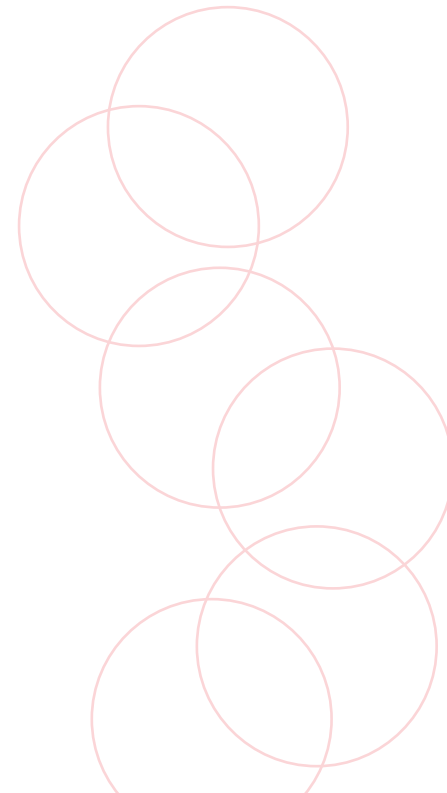
Vol. 2

|

시민상영활동가 편

목차 Contents

들어가며	04
시민프로그래머와 시민영화	08
수원시민영화프로그래머를 운영하며 든 단상	20
영화와 함께 크는 우리	28
모두센터와 함께 가는 사람들	34
우리 손으로 영화문화를 만들다	44
무명씨네라는 이름으로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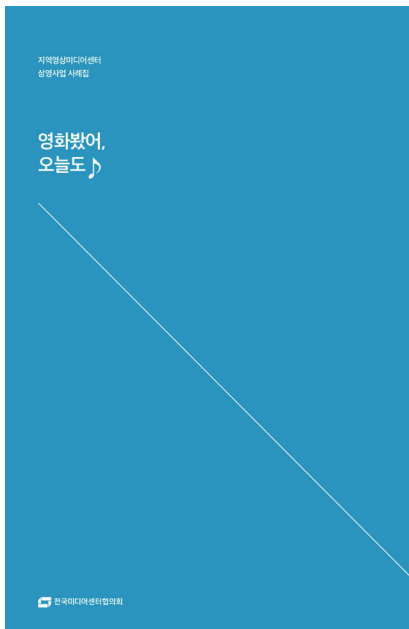


들어가며

#1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시작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 - 상영지원 사업>을 진행한 지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사업방식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각 지역 미디어센터의 다양한 상영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의 영상문화 활동과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활성화한다는 사업의 취지와 방향만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꼭 2년 전 이맘때쯤, 그간의 상영활동을 정리해보고자 지역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영사업 사례를 모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상영사업 사례집 - 영화봤어, 오늘도』(이하 『영화봤어, 오늘도』)를 발간했습니다. 정기상영회나 지역영화제 중심의 '상영프로그램' 섹션, 부대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풀어낸 '상영+부대·교육프로그램' 섹션, 지역의 시민상영활동가를 양성하는 '시민프로그래머 교육+영화제' 섹션, 상영 공간을 고민하는 미디어센터의 사례를 담은 '미디어센터+상영관' 섹션, 마지막으로 미디어센터의 '꽃', 상영스태프 워크숍 이야기를 담은 '미디어센터+스태프' 섹션으로 나누어 센터에서 벌어진 상영활동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담아보았습니다.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역의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센터의 활동 방향에 있어서 조금의 변화는 있습니다. 바로 미디어센터에서 직접 기획·운영하는 상영 프로그램에 더해, 지역의 시민들이 직접 상영회나 영화제를 기획하고 직접 운영까지 하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영화봤어, 오늘도』 사례집의 한 꼭지로 들어갔던 '시민프로그래머 교육+영화제'의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 주도의 영상문화 활동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미디어센터가 공감하고 이러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원을 마련하는 것. 품과 노력이 많이 드는 이 일을 미디어센터 스태프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마다 상황과 조건이 다르고, 참여자들의 욕구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기획자에게도, 참여자에게도 그리고 교육 강사에게도 모두 많은 고민을 던져줍니다. 그렇다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떤 정해진 틀을 모든 센터에 적용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상영사업 사례집 Vol. 2 - 시민상영활동가 편』은 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상영활동에 대한 이야기와 고민을 담아보았습니다. '가이드' 형태가 아닌 '사례집' 형태로 교육 강사, 미디어센터 기획자, 프로그램 참여자 등 다양한 주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해서입니다.

#2

먼저 2014년부터 여러 미디어센터에서 시민프로그래머 교육을 진행한 강사 선생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시민프로그래머'와 '시민영화'의 의미, 다양한 지역의 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한 시민프로그래머 교육프로그램 소개와 방향성, 고민 지점 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수원미디어센터,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원주영상미디어센터에서 시민들과 함께 한 한 해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수원미디어센터는 2014년부터 '시민영화프로그래머 교육'을 진행해왔고 올해로 다섯 번째 '수원사람들영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시민프로그래머 교육에 있어서 미디어센터 중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진 센터답게 올해 센터에서 이루어진 활동뿐 아니라 영화를 매개로 한 커뮤니티 형성, 공동체 상영, 교육의 필요성 등 국내외 사례와 함께 다양한 생각을 전해주셨습니다.

올해로 벌써 11회 행사를 치른 '진주같은영화제'는 진주시민미디어센터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민프로그래머 양성과정을 시작해 진주같은영화제

의 일부 섹션 프로그래밍과 모더레이터 활동 등을 시민들이 직접 해왔는데, 올해는 그 대상을 청소년으로 잡았습니다. 영화관람 환경의 변화로 10대들은 더 이상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지 않는다고도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걸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원주영상미디어센터는 2013년부터 센터 상영작을 추천하는 상영기획위원회를 두고 '도담도담시네마'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년간의 센터-시민과의 스킨십을 기반으로 2017년부터는 지역 청년들을 중심으로 '원주옥상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돌발상황 속에서도 유연한 대처는 물론, 차근차근 더 나은 다음을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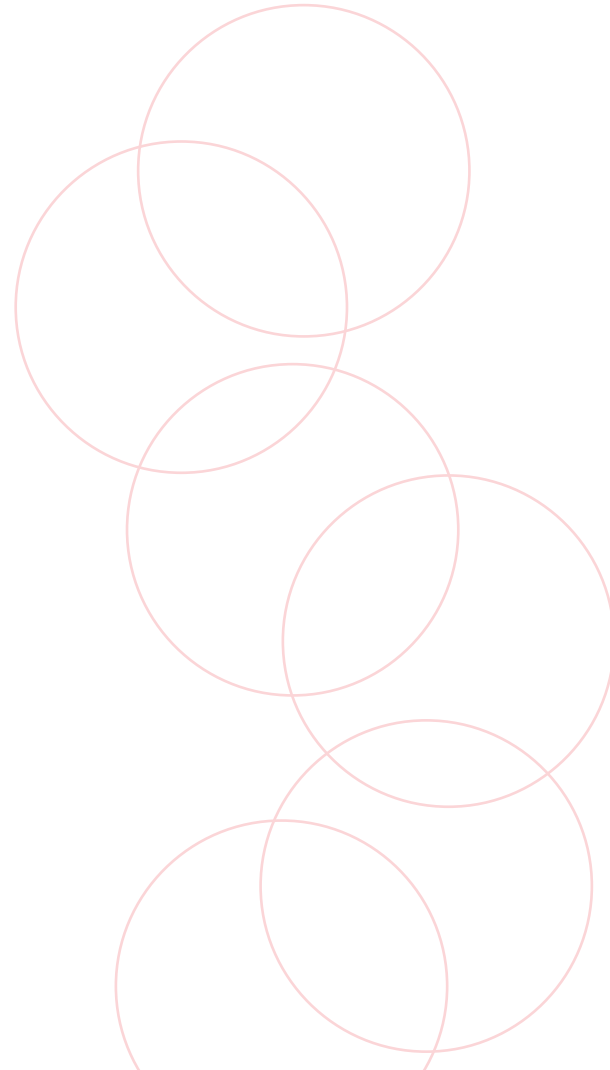
마지막 두 개의 사례는 미디어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성남시민영화기획단'으로 활동하면서 영화제 참관과 영화교육 진행, 그리고 '성남사는영화제' 개최까지 직접 해낸 열성적인 활동 이야기,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화제작동아리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무명씨네'라는 이름으로 공동체 상영, 영화감상모임 등 다양한 영상문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야기까지, 미디어센터의 활동이 의미 있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아쉽게도 이번 사례집에 많은 사례와 많은 주체들의 이야기를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센터 상영사업 중 비교적 난이도가 높고 시작단계에 있는 활동인 만큼, 성과보다는 고민의 지점이 더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집을 마중물 삼고 고민의 지점들을 나누면서 조금 더 풍성한 활동과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 영역에서 시민들의 일상적인 참여가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활동의 의미가 확인되는 한, 활동의 지속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

마지막으로, 사례집 제목으로 선택한 '시민상영활동가'라는 명칭은, 여러 글에서 표현하고 있는 '시민프로그래머', '시민영화프로그래머', '시민영화기획단', '상영기획위원회' 등을 통칭한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 시민들의 활동 범위나 특성에 따라 비슷하면서도 각각 다른 이름이 사용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좀 더 광범위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서입니다. 무엇이 최적의 이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되고 이야기와 고민이 모아지다 보면 알 수 있게 될까요?



시민프로그래머와 시민영화

김남훈
(모두를위한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 이사장)

2014년 가을, 수원미디어센터와의 협력으로 처음 시민프로그래머 교육과정을 시행한 이후 서울 강서·광진·서대문, 경기 고양·성남·수원·의정부, 충남 천안, 충북 제천, 전북 전주, 경남 진주 등 5년간 총 11개 지역에서 시민프로그래머 교육 사업을 수탁받아 강의를 진행했다. 강원을 제외한 서울 3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충청 2개 지역, 호남 1개 지역, 영남 1개 지역에서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지역 간 차이가 있었지만 짧게는 5주 차 길게는 15회 차, 평균 8회차에 가까운 구성으로 지난 5년간 매주 2회씩은 낯선 지역들을 왕복하는 일상을 익숙하게 받아들 이게 되었다.

원고 청탁을 받고 벌써 횡수로 5년이나 되었구나 싶은 의식을 처음 하게 되었고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을 느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시민프로그래머 교육을 각 지역별로 확인했던 여러 가능성과 기대에 비해 뚜렷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부끄러움도 함께 느끼게 되었다. 그럼에도 시민프로그래머 교육과정을 진행하며 알게 됐던 유의미한 지역문화 자원과 활용 가능성, 그간의 경험으로 여러 차례 수정하고 고민해 봤던 목표와 방향에 관해 지역 미디어센터를 비롯하여 여러 영화문화 활동가들과 그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시민프로그래머의 시작

'시민프로그래머'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누가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얼핏 이해하고 통용하고 있는 이 개념은 필자와 이 과정을 함께 했던 많은 미디어센터들이 만들어낸 것임이 분명하다.

2014년 여름, 우리는 수원미디어센터로부터 시민프로그래머 교육을 함께 해볼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우리가 이러한 제안을 받았던 이유는 필자가 속해 있는 모두를위한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이하 모극장)에서 그간 시민과 관객 대상으로 진행했던 여러 교육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극장이 시민프로그래머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2014년 봄, 모극장에서 활동하는 조합원들이 결성한 청년단체인 '영화의문'에서 시민영화제를 함께 기획하고자 참여자를 모집하면서부터였다. 모집된 10명 내외의 시민 기획자들은 그해 여름 홍대와 문래동 일대에서 '그들 각자의 영화제'라는 작은영화제를 개최하였다. 이 영화제의 개최를 위해 참여자들에게 영화제 기획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진행한 시민프로그래머 교육프로그램이었다. 모극장의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당시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수원미디어센터와 우리는 서로의 이해가 잘 맞아떨어졌고, 시민프로그래머 교육 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게 되었다. 약 3달 동안의 강의와 멘토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고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은 그해 겨울에 '제1회 수원사람들영화제'를 개최하였다.

처음 교육을 진행하기 전,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구성하는 데에 여러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진로 교육이 아니었기에 시민프로그래머의 활동과 시민영화의 개념을 우선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맞는 커리큘럼을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강의 기획 초기 우선적으로 관련한 여러 사례와 정책, 이론적 근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수원미디어센터와 강의를 기획하고 있을 즈음에도 분명 '시민프로그래머'라는 용어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화사나 영화 이론적 차원에서 시민영화나 시민프로그래머에 관한 명확한 설명은 찾을 수 없었고, 비슷한 사례로서 '필름 소사이어티', '씨네클럽', '커뮤니티시네마' 등과 같이 각 나라나 지역별로 흩어져 파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분석해야 했다. 다행히도 이 사례 모두는 "지역 관객(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요구와 필요를 해결해가는 자주적인 영화문화 활동이다"라는 정의상의 공통분모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시민들의 자주성을 촉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담론은 바로 문화권(Cultural Rights)이었다. 지역에서 발의되는 문화적 결핍과 필요조건의 제기는 국가와 정부를 상대로 한 시위의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지역민의 주체적인 문화 운동으로 이어갈 수도 있다.

1960년대 말 독일의 경우, 국가가 정치사회적 이유 등으로 뉴저먼시네마 등 예술영화에 대해 과도한 심의 조건을 부과하면서 관객들이 예술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자 비상설 공동체 영화관을 중심으로 이러한 예술영화들을 몰래 보는 공동체가 늘기 시작하였다. 당시 불법이었던 이러한 비상설 공동체 영화관의 상영이 이어지면서 기존의 지역 상업영화관

과 갈등이 유발되었고 결국 법적 소송으로까지 가게 된다. 1972년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공동체 상영관에서의 상영 행위는 상업영화관과는 전혀 다른 (문화적) 성과를 낳는다."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리며 공동체 영화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 판결로 인해 독일 전역에서 공동체 영화관이 생겨나고 영화 공동체가 확산되는 결과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독일의 '코뮤날레 키노(Kommunale Kino)'가 생겨난 일화이다.

지역에서의 관객운동은 문화적 제약 또는 필요에 의한 주체적인 해결 모색을 통해 출발하며 이는 코뮤날레 키노의 사례와 같은 '정부의 실패' 요인, 또는 상업영화 등의 독과점 등 '시장의 실패'로부터 파생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초기에는 영화 관람과 상영 활동이 주되지만 이후 지역의 여러 문화담론과 결합하여 확장된 사례를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서의 '시민영화'와 시민프로그램

'시민영화'란 이러한 지역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운동적 성격을 가진 활동에서 파생된 여러 형태의 영화문화 활동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국내의 경우 80년대 권위주의 정부 시절, 정치·문화·사회적 탄압에 대한 저항으로 '장산곶매'로 대표되는 독립영화 집단의 창작활동과 '문화학교 서울'과 같은 시네마테크 관객 운동이 촉발되었고 이 역시 시민영화의 관점에서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와는 사뭇 다른 맥락으로 일본 문화가 개방되기 이전, 이와이 쉰지의 멜로영화 <러브레터>가 입소문을 타면서 대학 간 불법순회상영이 이루어졌는데 이 역시 당시의 문화적 필요와 요구에 의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시민영화는 단지 수동적인 관람뿐 아니라 관람과 연계된 사회 및 지역운동 그리고 보다 능동적인 창작활동까지 포함할 수 있는데 시민프로그램 교육은 이러한 시민영화 활동 중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 상영활동가를 육성하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시점에서 시민영화는 당면한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를 함께 고려하고 이를 해결해가는 운동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시민영화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자치적인 시민들의 문화운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재의 관점에서 시민영화의 활동을 견인하는 주된 요소로는 지역 문화생태계의 왜소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영화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영화진흥사업과 문화 분야 블랙리스트 등으로 설명되는 '정부의 실패', 스크린 독과점과 대자본의 수직계열화로 설명되는 '시장의 실패'가 이러한 지역 문화권의 왜소화를 촉발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그간 다양한 영화산업 진흥정책을 펼쳐왔으나 영화영상문화에 관련해서

는 상당히 수줍은 감수성을 보여줘 왔다. 또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부는 오히려 지역의 문화 종다양성과 직결된 독립영화전용관,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을 정치적 관점에서 통제하고 블랙리스트들을 관리하며 수많은 상처를 남겼다.

스크린 독과점 문제로 설명되는 시장의 실패는 대자본의 투자·배급·상영사업의 수직계열화를 유발시켰고 그 자본의 주체가 외식, 쇼핑, 문화 기업이라는 점에서 문화적 혜택은 대도시 에 편중되었으며 지역 간 문화적 환경과 산업 간의 심한 불균형을 초래했다.

이러한 영화 문화에 있어 정부와 시장의 실패는 다른 대중문화 장르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가장 대중적인 예술 장르인 영화는 지역 문화 생태계에 특정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영화관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늘어났고 이러한 지역은 다른 인접 예술 장르의 향유 시설 역시 제대로 갖출 수 없는 환경이 다수이다. 또한 대도시도 마찬가지이지만 획일화된 문화 콘텐츠의 공급으로 인해 지역의 문화다양성이 크게 왜소화되었다.

지역에서의 문화권은 일차적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환경과 활동의 접근 기회를 말하며 두 번째로는 시민들의 문화적 환경과 활동의 참여 기회를 말한다. 이 두 가지 조건에 있어 정부와 시장을 대신해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문화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 영화문화 활동을 '시민영화'라 할 수 있으며 '시민프로그램'은 시민영화 안에서 관객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 즉 시민들이 보고 싶은 영화를 시민들이 선정하고 상영하게끔 하는 활동가들이다.

시민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모극장에서 지역 영상미디어센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진행한 시민프로그램 교육 사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진행연도	지역	협력 기관	회차	수강인원	영화제
2014	경기 수원	수원미디어센터	8	20	개최
2015	경남 진주	진주시민미디어센터	5	10	개최
	경기 고양	고양영상미디어센터	6	8	개최
	서울 서대문	서대문문화회관	8	7	개최
2016	서울 강서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5	12	개최
	충남 천안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5	13	개최
	경기 성남	성남미디어센터	10	8	미개최
	서울 광진	광진문화재단	10	11	개최

2017	전북 전주	전주시민미디어센터	15	22	개최
2018	전북 전주	전주시민미디어센터	15	12	개최
	경기 의정부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10	11	개최
	충북 제천	제천영상미디어센터	5	12	미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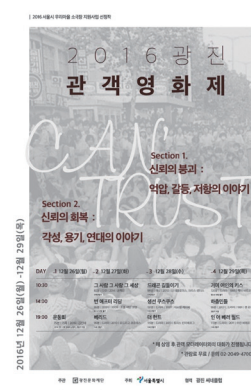
이 중, 미디어센터가 아닌 서대문구와 광진구의 경우 모극장에서 서울 각 광역구로부터 수탁 받아 수행하는 '서울시 우리마을 소극장' 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미디어센터로부터 강의 청탁을 받아 진행하였다. 2014년부터 총 11개 지역에서 12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평균 회차는 8.5회차이다. 12번의 프로그램 중 10번의 프로그램이 지역 시민들이 참여하는 영화제 기획과 연계되었고 천안과 전주 등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역 관객동아리로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곳도 있다. 이와 반대로 기존에 활동하는 지역 영화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천시의 사례도 특별했다.

교육프로그램의 최종결과가 영화제로 이어진 경우, 기존에 지역에서 개최되던 소규모 영화제의 시민 참여를 견인하는 사례와 처음부터 새로운 영화제를 기획하는 사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의 경우는 진주(진주같은영화제), 서울 강서(강서 힐링영화제), 천안(천안여성영화제), 전주(플링인전주)로 네 개 지역이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영화제를 기획한 경우는 수원(수원사람들영화제), 고양(고양시민영화제), 서울 서대문(팝업시네마테크-헬조선영화제), 서울 광진(광진관객영화제), 의정부(의정부소풍길영화제) 등 5개 지역이었다.

교육프로그램의 최종결과가 영화제로 이어지지 못한 지역도 두 군데인데 제천의 경우는 차년도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시민참여 섹션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전 기획으로 시민프로그램이 이뤄졌고, 성남의 경우는 영화제 개최를 위해 10회차로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으나 프로그램 막바지 지자체 예산이 삭감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영화제가 개최되지 못하였다.

교육 내용은 각 지역적 고유한 특성과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공통적인 환경 모두를 고려해서 진행되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시민영화제' 기획이라는 프로젝트에 중점을 맞추면서 지역 문화 향유권, 시민영화의 역사와 사례, 커뮤니티 시네마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론 강의를 초반에 배치하고, 이후 지역 영화제를 발상해보거나 혹은 실제로 영화제를 기획하는 워크숍 과정이 후반부에 진행되었다.

워크숍 과정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기준을 바탕으로 출발하지만 이후 세부 내용은 참여자들이 느끼는 지역의 문화적 문제(문화적 결핍과 욕구)를 바탕으로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가장 먼저는 지역의 영화와 관련한 문화적 환경을 함께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시민들의 문화적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보통 시민영화제를 기획한다고 할 때, 수강생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특정 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할 경우엔 대략 수강생 중 가장 영화를 많이 보거나 자기 취향에 자부심이 높은 사람, 또는 고집이 세거나 목소리가 큰 사람 중심으로 프로그램 방향이 흘러가고 남은 참여자들의 동기 결여와 피로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수강생들의 다수는 워크숍이 시작되자마자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영화, 특정 감독이나 장르 등을 상영작으로 선정하고 싶어 한다. 그때마다 선정하고자 하는 작품이 초기에 세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수강생들 간 토론이 이뤄지게 한다. 시민영화제를 기획하는 우선적 고려 순서는 아래 그림과 같다.



영화상영과 배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영화상영을 주관하고 기획하는 '주체', 그리고 상영작을 비롯한 '콘텐츠', 영화상영을 위한 하드웨어인 '공간',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다. 그림 아래 'Who', 'What', 'How'는 앞서 말한 이 세 가지 요소와 등치되는 대응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시민영화제란 시민과 관객들이 지역의 문화적 필요와 요구를 스스로 인식하고 기획하는 과정으로서 일종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Who', 'What', 'How'는 비즈니스 모델링의 방법론으로 이를 영화상영의 요소와 대응시켜 구체적인 시민영화제 기획과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로컬 비즈니스의 미션으로서 기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첫 번째 'Who'는 수강생 스스로가 영화제의 프로그래머이자 관객으로서 '지역 시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파악해가는 과정이다. 우리 지역의 영화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강생들에게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토론해가며 우리는 어떤 영화를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영화를 볼 수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을 바탕으로 수강생들은 그다음 주까지 하나의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주변 지인 세 사람 이상에게 자신이 받았던 동일한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기록해 오는 것이다.

그 다음 주는 수강생 각각이 인터뷰한 기록을 함께 공유하면서 자신들이 몰랐던 지역 시민들의 문화적 결핍요소들, 지역에 부재하거나 필요한 영화작품과 공동체 상영의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이러한 설문결과가 유의미한 표본이 될 수는 없지만, 이 과정을 통해 자신 안에 집중된 문화사회적 관점을 조금 확장시킬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Who'를 논의하는 과정은 자신의 취향, 선호,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수강생들의 의식을 지역과 공동체라는 고민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첫 과정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이후 영화제 기획과정도 양상을 달리한다.

11개 지역에서 시민프로그램 교육을 시행하면서 모든 지역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문화적 결핍 요소는 종 다양성 문화향유와 교육과 연계된 어린이, 청소년, 가족 문화체험의 한계였다. 지역만의 특징으로는 경기 등 수도권외의 경우 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해 실질적으로 지역내 공공문화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다수의 지역에서 50대 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지역의 주요 세대들을 위한 활동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성남시

총 9개관 / 스크린 49 / 좌석 7798석
 영화관람인구 : 772,327명
 1 스크린 당 인구 19,825명 (서울 15,679명)
 예술영화전용관 1개관 (서울 29개관)
 10대 : 8 %
 20대 : 17.6%
 30대 : 20.4%
 40대 : 22.7%
 50대 : 20.1%
 60대 : 11.2%

분당구

총 7개관 / 스크린 37 / 좌석 5,980석
 영화관람인구 : 392,212명 (50.8%)
 10대 : 9.1 %
 20대 : 17.6%
 30대 : 20.6%
 40대 : 24.2%
 50대 : 18.9%
 60대 : 9.6%

수정구

총 1개관 / 스크린 6 / 좌석 1,104석
 영화관람인구 : 177,875명 (23%)
 10대 : 6.6 %
 20대 : 17.4%
 30대 : 20.7%
 40대 : 21%
 50대 : 21%
 60대 : 13.3%

중원구

총 1개관 / 스크린 6 / 좌석 714석
 영화관람인구 : 202,240명 (26.2%)
 10대 : 7.1 %
 20대 : 17.6%
 30대 : 20%
 40대 : 21.3%
 50대 : 21.6%
 60대 : 12.4%

성남시 1 스크린 당 인구 19,825명

10대 : 8 % (+1)
 20대 : 17.6 % (-)
 30대 : 20.4 % (-)
 40대 : 22.7% (+1)
 50대 : 20.1 % (-)
 60대 : 11.2% (-1)

고양시 1 스크린 당 인구 13,549명

10대 : 9.1 % (+2)
 20대 : 17.4 % (-1)
 30대 : 18.1% (-2)
 40대 : 25% (+4)
 50대 : 20.9% (+1)
 60대 : 9.5% (-3)

서울 1 스크린 당 인구 15,679명

10대 : 7.1 %
 20대 : 18.1%
 30대 : 20.9%
 40대 : 21.3%
 50대 : 19.8%
 60대 : 12.8%

성남미디어센터 강의자료 중 - 자신의 지역의 영화와 관련한 관객, 극장, 지역별 현황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수강생들에게 제시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토론 진행

'Who'에 관한 최종적 논의는 지역의 문화적 요소를 바탕으로 영화제에 참여할 주요 관객들을 설정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설정된 '관객군'을 기준으로 이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무엇인지 설계하는 과정이 'What' 과 'How'의 진행과정이며 결국에는 영화제 홍보물에 들어갈 상영시간표와 정보를 완성해가는 과정이다.

영화제의 모든 기획이 완료되면 참여한 시민프로그램머들은 영화제 기간에 '영화해설' 및 '관객과의 대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GV(Guest Visit) 프로그램이 아닌 Host Program으로서 참여자들이 영화제 전반을 직접 경험하는 이 과정을 위해서는 공식 강의가 끝나고 영화제가 개최되기까지 약 한 달 정도의 홍보 기간 동안 수강생들이 따로 만나서 영화제 진행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의미 이전에, 함께 기획한 수강생들 간의 공동체성을 확인하고 영화제 이후 지속적으로 만나고 미디어센터를 기반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식이다. 전주의 경우 이러한 과정에서 '무명씨네'라는 지역 영화공동체가 설립되어 지역에서 다양한 영화상영 및 지역영화 제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마을기업으로서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커뮤니티 시네마'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시민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은 매우 고되다. 서울에 위치한 모극장에서 매주 전주나 전주 같은 도시로 강의를 위해 왕복하는 일에는 꽤나 여독이 따르며, 수강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또는 강사의 성격상 강의 외 이야기 자리를 갖는 등 참여자들과 스킨십을 맺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된 만큼 마무리가 되었을 때 보람도 크게 느끼는 한편 정책적인 한계도 많이 느낀다.

시민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이 기획된 이유는 지역에서의 영화문화와 관련한 활동가를 양성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시네마의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커뮤니티 시네마란 단지 지역의 비상설 영화 상영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소개한대로 주체-콘텐츠-공간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지역 영상문화의 실제적인 활동 형태를 의미한다.

서울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역도 이러한 활동을 연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많은 지원사업과 보조금 사업에 의존하고 이러한 예산조달에 어려움이 생기면 활동 역시 다른 동력을 찾지 못하고 와해되기 일쑤이다. 다수의 미디어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상영 지원사업과 강사 운영 예산 등을 통해 시민프로그램 교육과 시민영화제 기획사업을 진행하지만, 그 규모나 내용은 연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조금이라도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영화공동체라면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과 같은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 등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그 시도 자체가 매우 큰 도전이고 어려운 숙제이다.

현재의 영화산업과 시장 상황에서 지역의 문화적 환경은 매우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역의 문화다양성과 기본적인 향유권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접근의 권리는 영화문화와 관

련해서 정책적으로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커뮤니티 시네마를 위한 활동은 기본적으로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동기와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연속적인 활동과 유의미한 효과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미디어센터의 '시민프로그램 양성 교육' 과정은 계속 이어지는 지역도 있지만 한 해의 경험으로만 마무리되는 지역도 많다. 이는 지역별 미디어센터의 상영사업에 대한 비전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대개의 미디어센터는 1인 정도의 상영담당 직원이 존재하는데 시민프로그램 교육의 주요한 결과는 이들 담당자의 열의와 노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역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미디어센터의 상영시설 및 상영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고 미디어센터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시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서로 윈-윈 하고자 하는 상영 담당자의 바람과는 다르게, 시민 참여 사업들은 여러 형태의 난해함, 이해관계 조정에 따르는 피로감이 따라온다. 그럼에도 미디어센터의 중장기적 운영 방향에서 시민프로그램 교육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궁극적으로 시민프로그램 육성은 시민들을 미디어센터 상영사업의 주체로 성장시켜 다양한 참여 방식의 확장을 도모하자는 취지이며, 미디어센터에서 상영사업은 다수의 지역 시민들에게 센터의 존재와 활동을 알리고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초기 시민 참여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어려움이 따르지만, 점진적인 상호 관계와 거버넌스가 성립된 이후부터는 다양한 인접 교육과정과의 협업 등을 비롯한 여러 유의미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2018년 영화진흥위원회는 기존에 없었던 '지역영화문화진흥' 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구성 과정에서 잡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기존 산업 지원 중심의 영화진흥정책 이외에도 '문화'라는 담론을 함께 포괄하겠다는 영진위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한국영화 발전계획(2019-2021)'에 따르면 '시민 중심의 영화문화 활성화', '지역 간 영화 향유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시민 중심의 지역 공공상영회(우리 동네 소극장) 운영 계획, 지역영상문화 중간 지원 시설(영화문화 누림터) 계획 등이 담겨져 있으며 그 세부 내용에는 '시민프로그램 육성'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사업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역 영화문화정책이 가장 발달한 나라인 영국의 경우 국내의 영화진흥위원회에 해당하는 'BFI(British Film Institute)'에서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화진흥위원회와 BFI는 조직구성과 운영방식에서 상당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영국 역시 국내의 영화산업 중심 지원기관인 'UKFC(UK Film Council)'가 존재했으나 2011년 UKFC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민간기관인 BFI에 이관한다. 그 배경에는 시장 내에서 경쟁

하는 사적재로서의 영화콘텐츠를 지원하는 산업 진흥 정책에 대하여 많은 논의와 충돌이 있어왔고 영국 역시 지역 간 문화 격차가 심화되면서 영화 공동체 및 지역 문화권의 이슈와 필요성이 부각, 기존의 산업 진흥의 정책방향을 문화진흥의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 이유가 됐다. BFI가 영화정책 전반을 이관 받은 후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바로 '커뮤니티 시네마'의 지원이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도 이뤄지지만 다양한 형태의 사회간접자본(SOC)과 집합적인 공공자원을 조성하고 지역 간 관객 네트워크 및 공동체 지원 등을 통해 시민과 민간의 의지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BFI Fund', 'Audience Network', 'Neighbourhood Cinema', 'Film Club', 'Film Academy Network'와 같은 사업들이 대표적이며 이 사업들은 개별 사업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진행된다.

시민프로그램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시네마'를 위한 지역 활동가와 기획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우선된다. 미디어센터는 이러한 시민 활동의 거점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미디어교육과 '커뮤니티 시네마' 활동과의 유기적인 활동을 통한 다양한 사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시민프로그램 프로그램은 지역 영화제를 발상하고 실제로 기획하는 과정까지 그 커리큘럼의 공통점이 있었으나 이는 영화제를 통해 구성해 낼 수 있는 초기 지역 자원들의 유도장치일 뿐, 각 지역의 특성과 공동체성에 따라 여러 다른 콘텐츠로 확대하여 해석하고 운용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미디어센터의 시민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힘을 보태고,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로 잡고 실제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만들어 정책에 반영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시민프로그램 교육의 방향성 제언

시민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은 미디어와 영상문화의 중요성 및 미디어센터의 역할을 지역 내에서 주요한 문화담론으로서 성장시킬 수 있는 주요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미디어센터는 영화공동체의 연속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을 보다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아닌, 미디어센터 상영사업의 구조를 시민참여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영화와 지역담론이 결합될 수 있도록 공간을 지원하는 등 사회간접자본 또는 사회적 공유자본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시민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콘텐츠로는 시민영화제 기획 이외에도 미디어센터 상영공간에서의 월간 또는 주간 정기상영회 기획 참여, 온라인 시민 칼럼 및 리뷰 작성, 상영사업 모더레이터 및 영화해설 참여, 기타 미디어센터 상영행사 참여 및 동아리 공간 사용 등의

지원들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활동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청년활동지원센터, 생활문화예술지원센터의 동아리 지원사업, 상영지원사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활동 지원 방안을 제안할 수도 있다.

한편 미디어센터에서 초기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다수의 수강생은 지역 미디어센터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이다. 미디어센터마다 주 이용자층이 다르지만 수도권외의 경우 중장년층이 다수를 이루며, 어떤 경우는 주 수강생 다수가 60대 이상의 노년층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수강생들 중 일부는 복지적인 문화생활 차원에서 미디어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 영화 프로그래머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수강 신청한 경우도 많았다. 이로 인해 강의 초반, 영화와 영화프로그래머 또는 영화제, 영화상영회 등의 기초적인 개념과 프로젝트를 소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이런 낮은 개념으로 인해 강의 중반에 수강을 포기하는 분들의 비율도 높았다. 초기 수강생 모집 시, 영화 프로그래머에 대한 개념과 워크숍을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함께 필요한 이유이다. 전주시민미디어센터의 경우, 시민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이전 오리엔테이션의 개념으로 2회 차의 사전 강연을 진행했고, 몇 달 후 본 강의를 진행할 때 사전 강연에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한 수강생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본 강의 수강 신청자 22명 중, 15회 차가 넘는 긴 시간 동안 최종적으로 프로젝트 끝까지 모두 참여한 인원은 18명으로 중도 포기자가 4명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시민프로그램 교육은 담당자 입장에서 많은 피로가 동반될 수도 있다. 모집과 강의 초반에 강의의 목적과 프로젝트의 목표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수강생들 사이의 갈등도 많이 일어난다. '나는 이 영화를 꼭 틀어야 한다. 나는 이 역할을 반드시 할 것이다.' 구성된 간 여러 형태의 갈등 조정이 강사와 센터 담당자에게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참여자 다수는 마지막까지 서로의 약속을 잘 지켜가며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런저런 여러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서 어떻게든 합의를 도출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시민 참여를 도모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 될 것이다.

이러한 활동과 경험이 점차 누적되면서 상층에서 담론화 되고 있는 영화영상문화 정책의 튼튼한 임상사례를 미디어센터 중심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 또는 미디어센터의 사례로부터 생겨나는 실질적인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만드는 것, 이것이 시민프로그램 교육을 이어나가고 발전시켜야 할 이유일 것이다.

수원시민영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든 단상

주재형
(수원미디어센터 상영담당)

이해와 오해 사이

우리나라 공동체 상영의 부흥기는 언제였을까? 아마도 그 첫 시작에 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지만, 가장 활성화되었던 시기는 민주화 운동과 맞물렸던 시기가 아닌가 싶다.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과거 공동체 상영이 성했던 시기는 모두 사회주의 운동 혹은 독재정권 치하에서 이루어졌었다. 그 이유는 공동체 상영의 원동력이 금지된 영화와 그 영화를 볼 장소가 없다는 것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엔 사전 검열 제도가 존재했었고, 1980년대 전두환 정권하에서 <파업전야>와 같은 장산곶매의 작품들이 공동체 상영의 주 대상이었다. 하지만 1997년 헌법재판소 판결과 함께 사전 검열 제도는 사라졌고, 공동체 상영의 기세는 이후 한 풀 꺾였다. 여기서 드는 생각 하나, 공동체 상영 전제조건인 핵심은 무엇일까? 바로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 없다는 현실, 여기가 출발점이다.

지금 현재, 2019년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 모바일과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시대에 과연 이 질문들이 유효할까? 이 시대에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작품이 정말 존재하긴 할까? 현재 우리에게 어떤 작품을 외부적인 강압에 의해 볼 수 없다는 억눌림이 작게나마 존재하는가? 더해, 우리 사회엔 과연 유효한 억압이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공동체 상영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 질문들은 나의 오해인가? 이해인가?

나의 가장 못한 이해?

처음 상영담당자로 수원미디어센터에 와서 시민영화프로그램을 접하면서 든 생각은 이것이었다. 영화제를 위한 단발성 모임이라는 점, 이 사업에서 중요한 건 영화제를 성황리에 치러내는 것이라는 점, 이 두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다. 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계속 드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럼 과연 이 행사를 치르고 남는 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다. 매해 모집된 시민영화프로그램이 운영하는 수원사람들영화제는 지역 내 분출구로서 역할을 가지고 기능하고 있는가? 이 영화제는 활동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존재하는가? 나의 얕은 생각으로 둘 다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여기서 이 사업을 향한 나의 잘못된 이해가 시작되었다.

일단 일은 해야 했으므로 경험 차원에서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해보기로 결정했다. 모임 혹은 조직에는 언제나 주축이 될 멤버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작년 프로그래머분 중 주축이 되었던 분을 수소문해 알아보았고, 기획 전 그분과 만나 여러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함께 해주면 좋겠다고 청했고, 다행히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셨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떨어지는 담당자인 나보다 훨씬 나은 멘토로서,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주시지 않을까하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다.

이분을 통해 시민영화프로그램 이진 기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2016년 3기의 경우, 프로그래머가 11명으로 많이 모집돼 처음엔 엄청 큰 기대를 모았지만, 내부적으로 취향별·연령별·성별로 그룹이 갈라져 어울리는 경향이 있었다고 했다. 오히려 2017년 4기의 경우엔 그보다 적은 7명의 활동가가 참여했지만, 그중 여성의 비중이 높아 '비바 걸스, 비바 라이프'라는 여성영화 주제로 뭉치는데 수월했다고 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의견을 모으기 어렵다는 점, 각자가 원하는 영화 혹은 영화제가 다르다는 점, 특히 서로 다른 이들을 하나로 묶어낼 지점이 영화제라는 행사를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것 외에 없다는 점이 눈에 들어왔다. 또한 매년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하기에 의외성, 우연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었고, 모임을 몇 주 운영하기 전까지는 구체적 컨셉을 잡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든 하나의 의문, 과연 이 사업이 지속성과 안정성을 내포하는 건 불가능할까 라는 질문이 생겨났다.

나의 가장 잘한 오해?

시민영화프로그램의 강사 섭외를 진행하면서 강의를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지 논의가 필요했다. 지난해까지는 지역 영화제 경험이 많은 강사를 섭외했고, 다양한 영화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진행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데 초점을 맞췄었다. 이번엔 지난번과는 좀 다르게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했고, 그래서 결정한 게 시네마테크(극장)의 역사부터 시작해 공동체 상영의 의미와 프로그래밍이라는 행위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었다. 다행히 서울아트시네마의 김보년 프로그래머는 그런 지점들을 가장 많이 고민한 사람 중에 한 분이었고, 그 고민의 결정체를 쉬운 말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강사였다. 다만 걱정은 '역사'니 '의미'니 하는 낯 뜨거운 단어들 때문에 사람들이 지레 겁먹고 피하지 않을까하는 점이었다. 지원자가 없거나 중간에 다 나가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해보면 그건 나의 첫 번째 오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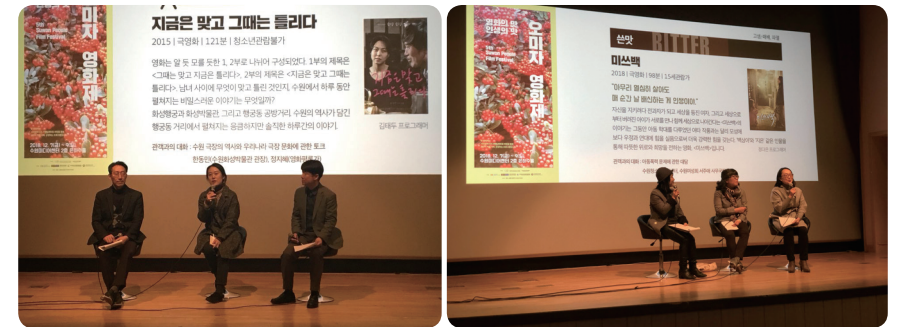
나의 두 번째 오해는 수원 내 영화사 정리와 관련해서였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시민영화프로그램 활동이 의미가 있으려면, 수원 내 영화와 관련된 역사를 끄집어내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봤다. 과거 수원에서 영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활동을 지속하는 그림을 그리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또 한 번 걱정이 들었다. 단순히 좋아하는 영화를 선정하고 상영하는 재미를 느끼려고 온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식의 번외 작업을 활동가에게 요구하는 건 부담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8명으로 시작된 이 모임은 한 주 만에 2명이 나갔고, 6명으로 운영되었다. 사실 남은 6명도 언제 나갈지 모른다는 점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시간을 보냈었다. 다행히도 이후엔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 사실 하루만 경험해보자 왔다가 예기치 않게 끝까지 활동한 분도 계셨다. 그리고 몇 주 후부터 예기치 않았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바로 열린 강의와 발표들이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에 김보년 프로그래머가 걱정까지 했다. 영화제 기획에 대한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돼 누군가 낙오 혹은 상처받을까 우려된다고 말할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수원 내 영화사 정리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이었다. 수원시청에서 발간한 책 중 수원 내 극장들에 대해 남아있는 기록을 찾아주신 분도 있고, 수원화성박물관 한동민 관장님의 『수원야사』라는 책 중 수원 내 영화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알려주기도 했다. 이후 관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수원 극장사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그리고 대화 중 1년 전

수원문화재단에서 열렸던 '극장 유람' 전시가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대화를 나눌수록 프로그래머들이 중심이 되어 여러 가지 논의를 풀어갔고, 수원에 온 지 얼마 안 된 타지인에 가까웠던 나는 오히려 한발 물러나 조연자 역할로 남아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염려했던 지점들은 나의 오해였다. 나는 이 기획을 시작하면서 사업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통해 많은 의심을 품었었다. 하지만 직접 시민영화프로그램 모임 운영하고 오해를 풀어가면서, 이 사업이 향후 나아가야 하는 바에 대해 조금씩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 결국엔 남는 것은 영화제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어느 날 남편이 극장을 사왔다."

결국 남는 건 사람이라는 판단하에 시민영화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속가능한 조직으로서의 '시네마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시네마 커뮤니티'란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영화를 보는 행위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공동체 상영을 통해서 여러 담론을 만들고 이슈를 제기하는 행위를 지속해나가는 것이다. 향후 미디어센터의 롤은 시민영화프로그램들이 자발적으로 시네마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도록 돕고, 공동체 상영을 지원하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해서 다른 나라의 선진 사례를 찾아보다 재미있는 문장을 하나 발견했다.

"어느 날 남편이 극장을 사왔다."

이는 극장 재생 운동 중 하나였던 도요오카 극장 재생 프로젝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말이다. 인구 8만의 소도시이자 효고현 북부에 위치한 도요오카에는 1927년에 개관한 극장이 하나 있었다. 2000년대 들어 디지털 시네마가 도입되면서, 그 장비를 구입하기 힘든 영세극장들이 일본에서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 그렇게 폐관하게 된 도요오카 극장을 2012년 영



도요오카 극장 모습

화 애호가였던 '이시하라'라는 사람이 인수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극장을 살리기 위해 <도요게키 신생 프로젝트팀>이라는 시네마 커뮤니티를 만들게 된다.

일본에선 '일본 커뮤니티 시네마 회의'라는 매년 열리는 영화 공동체에 관한 전국적인 모임이 있는데, 2013년 9월 이곳에서 <도요게키 신생 프로젝트팀>은 극장 재생 프로젝트의 기획서를 발표하고, 이는 큰 호응을 얻게 된다. 뿐만 아니라 효고현립대학 경영학부 교수 및 학생들에게 자문을 얻어 지역 내에서의 영화관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만들어나간다. 또 지역의 예술가들, 영화애호가들과 함께 공간 설계를 구상한다. 공간 수리비용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금을 하였고, 110명에 의해 271만 엔 정도를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1200만 엔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 디지털 영사기 2대를 구입하고, 2014년 재개관하게 된다.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 극장을 되살리고 영화 문화 거점을 만든 사례인데, 사실 수원에도 비슷하게 남아있는 극장이 있다. 1920년대부터 운영되었던 '수원극장'인데, 현재 한복집으로 개조하여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내부엔 영사실 등 옛 극장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 충분히 복원이 가능한 상태다. 사실 행정에서 몇 년 전부터 매입을 위해 검토를 해왔지만, 동력이 없어 아직까지 답보상태로 있다. 수원의 시네마 커뮤니티가 생긴다면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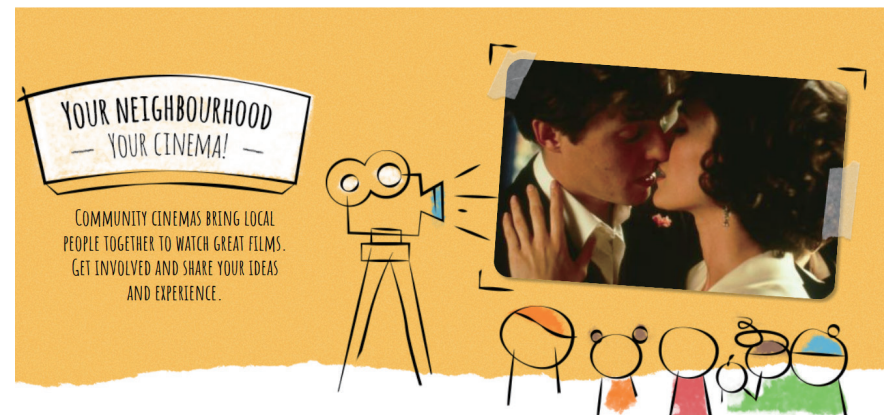
공동체 상영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또 하나의 좋은 예이자, 커뮤니티 시네마의 한계점 또한 분명히 시사하는 다른 예를 들어 보고자 한다. 바로 영국 BFI(영국영화협회)가 2014년부터 기금을 모아 진행하고 있는 BFI Neighbourhood Cinema 사업이다. 이 사업의 전신은 1969년 연대 단체였던 영국필름소사이어티연합(BFFS, British Federation of Film Society)인데, 이 단체는 1차 세계 대전 중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검열에 대해 만들어진 1925년의 The Film Society에서 시작되었다. 일군의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1960년대 들어서는 약 500여 곳의 공동체 상영

그룹이 만들어졌었다. 그들은 함께 연대해 단체를 만들어 행정에 재정적인 보조를 요구했고,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단체로 발전했었다. 하지만 90년대를 거치며 홈비디오의 보편화, 영화 전문 채널의 등장, 민주주의의 보편화 등 운영 동력이 떨어지면서,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렇게 없어졌던 단체가 2014년에 다시 형성되어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점은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에서 시네마 커뮤니티는 왜 다시금 조명받고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을 위해서는 서두에 얘기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연 현시대에 보고 싶으나 볼 수 없는 영화가 존재하는가? 우리에게 외부적인 강압에 의해 보고 싶은 작품을 볼 수 없는 억눌림이 작게나마 존재하는가? 우리 사회에 과연 유효한 억압이 존재하는가? 등에 대한 질문에 답을 구해봐야 한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멀티플렉스 점유율을 들어볼 수 있겠다. 현재 서울의 멀티플렉스 스크린 점유율은 95.7%고, 경기도의 멀티플렉스 스크린 점유율은 98.3%이다. 그리고 멀티플렉스 극장 점유율은 서울 79.1%이고, 경기도는 92%이다. 심지어 제주와 세종의 경우는 멀티플렉스 점유율이 100%이다. 이는 보여주는 바가 크다. 개봉영화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철저히 대기업의 자본 논리에 의해 볼 수 있는 작품이 정해진다는 사실이다. 특히 극장의 경우 서울은 그나마 낫지만, 수원이 속한 경기권의 경우엔 확실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내가 알기로 수원에서도 멀티플렉스를 제외한 극장은 미디어센터의 극장이 유일한 상황이다.



물론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을 생각하면 이 논의층은 훨씬 복잡하고 풀기 어려워진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영화를 많이 보는 나라이지만, 멀티플렉스 점유율이 평균 90%가 넘고 전국의 45% 지역에는 극장이 하나도 없는 문화다양성 면에서의 후진국이다.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나 스스로도 아직 찾고 있는 중이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담론들이 드러나야 함에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하지만 그러한 베일을 걷어내고 공유하기에는 어떤 동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 성차별 문제, 노동 문제, 소수자 문제 등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는 우리 도처에 널려있지만, 이에 연대하고 관심을 가질만한 여력은 부족한 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동력이 생길까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가? 우리가 영화를 통해 동력을 만들 수는 없을까?

공동체 상영, 다양한 어젠다의 토론장 역할

수요자의 요구, 니즈를 나름대로의 통찰을 통해 혁신해나간 기업들에 대해 쓴 책 『디맨드』에는 시애틀 오페라단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이 오페라단은 장기적인 하향세를 겪고 있었고, 이를 타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그중 하나로 그들은 교향악단 혹은 오페라단의 수요를 새롭게 창출하기 위해 학교로 침투를 해 들어갔다. 단원들이 직접 시간이 날 때마다 지역의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자, 이 아이들은 처음엔 교향악 혹은 오페라를 다가서기 어려운 무엇 혹은 돈이 많이 드는 활동 정도로 생각하다가, 단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 인식을 차츰 바꾸어 나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청소년들은 음악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기관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정기 할인권 등 프로모션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했고, 청소년들은 음악을 듣는다는 행위에 대해 친숙함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1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이 청소년들은 성인이 돼 지역 문화공간의 주 관람층이 됐다. 이 교육을 제안했던 고등학교 선생님은 오페라단의 홍보운영 담당자로 영입됐고, 이후 시애틀 오페라단의 관람 수는 장기적 상승세로 돌입했다.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공동체 상영과 커뮤니티 시네마의 동력은 교육에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 시민영화프로그래머 사업을 가지고 청소년, 이주민, 여성회 등 다양한 곳으로 침투해, 교육을 통해 영화를 소재로 다양한 담론들에 대해 토론하고 대화를 나누는 경험을 하는 것이 결국에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영화만큼 다양한 주제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는 없다고 생각하는 만큼, 영화감상워크숍 등을 통해 시민들의 영화를 보는 눈을 기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영화라는 소재를 통해 사고능력을 배양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학습할 수 있다면, 그건 향후 영화 문화 커뮤니티 형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라 생각한다.

서두에 과연 공동체 상영이 이 시대에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해보았다. 나의 대답은 '그렇다'에 가깝다고 말하고 싶다. 과거 공동체 상영은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 없다는 현실과, 말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없다는 억압에서, 그 원동력을 얻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원동력을 어디에서 얻어야 할까? 그건 바로 가려진 억압이 무엇인지 찾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워낙 시스템이 고도화되어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 인지하기조차 힘든 현실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분명 문제는 있다고 느끼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는 것, 그것이 현대의 중요한 쟁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영화로 사고하고 토론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돕고, 이들이 성장해 시네마 커뮤니티를 형성하게끔 조언하고, 그 커뮤니티가 발전할 수 있도록 미디어센터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그것이 앞으로 시민영화프로그래머 사업이 발전해 나가야 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커뮤니티 디자인』의 야마가타 료는 이런 말을 했다. "아름다움이 공동체 간 접점을 만든다." 영화가 문화공동체로서 우리 사회 간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영화와 함께 크는 우리

조정주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사무국장)

취향은 어디에서 오는가

진주시민미디어센터는 경상대학교 정문 앞에서 비상설극장 인디씨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상영작을 선정해 정기적으로 독립, 예술영화를 상영하고, 기회가 되면 국내영화제 순회 상영회나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매년 가을에 지역 영화를 포함한 여러 독립, 예술영화를 만날 수 있는 진주같은영화제도 진행을 하지요. 이 장소에서 정기 상영회를 진행한 것이 10년, 진주같은영화제도 햇수로 1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미디어센터를 모르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다들 놀라워하세요. 그리고 꼭 이 질문을 하시죠. "대학교 앞에 있으니 학교 학생들이 많이 찾겠군요?" 글을 읽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에 따라 관람객 특성이 달라지긴 하지만, 인디씨네 상영작을 꾸준히 관람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왜 학생들이 안 찾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스태프들도 답을 찾고 싶은 질문입니다. 정기 상영회뿐 아니라 센터가 상영회를 기획할 때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센터가 홍보를 못 해서 그런 걸까요? (그럴 수 있지요) 가까운 멀티플렉스와 이름이 비슷해서 다들 그 영화관에 가서 그런 걸까요? (이름 때문이 아니라도 많이들 가지요) 센터에서 하는 영화가 안 좋아서 그런 걸까요? (프로그래머는 읍니다)

어떻게 하면 독립, 예술영화의 재미를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기사 한 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기사였는데, 여기서 양현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가가 예술 활동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안목을 가진 수요자가 있어야 하고 그 해결책은 교육뿐."

머릿속에서 뒹뒹뒹 종이 울렸습니다. 이제까지 센터에서는 영화 읽기나 감상을 나누는 활동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전혀 없었죠. 그래, 이게 문제구나 싶었습니다. 왜 안 좋아하냐고(왜 영화 보러 안 오냐고) 물을 게 아니라, 이런 영화가 있다고 더 적극적으로 소개해주고 각자의 취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활동을 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진주교육공동체 결'과 함께 '진주같은 청소년 영화동아리'를 기획했습니다. 진주교육공동체 결은 학교가 가졌던 교육의 책임을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 공동체입니다. 진주교육공동체 결에서는 친구들이 스스로 교육의 주인이 되는 활동을 고민하다가 학교 밖에서 하는 미디어 교육, 미디어 동아리 사업을 센터에 제안 해주셨습니다. 진주 지역은 옛날부터 서부 경남지역에서 학생들이 유학(!)을 오는 지역입니다. 도시 규모에 비해 대학교도 많고 학생 수도 많은 편이예요. 하지만 그 많은 학생들이 공부 외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청소년 활동을 위한 단체도 많지만, 지역 분위기가 공부 외에 다른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진주교육공동체 결의 바람과 미디어센터의 방향이 딱 맞았던 거죠.

영화로 만난 아이들

미디어센터 SNS, 진주교육공동체 결을 통해 홍보를 진행해 신청을 받았습니다. 마블 영화가 좋은 중학교 1학년 친구, 시외버스를 타고 사천시에서 온 친구,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친구까지 다양한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영화를 좋아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이런 자리를 진즉에 만들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첫날에 우리는 자신의 인생 영화 5편을 소개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직 영화를 많이 못 봐서 꼽기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뚜렷하게 자신의 영화 취향이 드러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오십 개가 넘는 영화 이름을 모아보니 <신과 함께>나 <인터스텔라>, <태극기 휘날리며> 등 극장에서 크게 흥행한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지역 청소년들이 사는 환경이

1. 조상인, "양현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동네 산책하다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생활문화시대 열어야"" , 《서울경제》, 2018.02.04



보였습니다. 굿다운로드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영화 보기 쉬워졌다 하지만, 실제로 친구들은 동네 영화관에 걸려있는 영화에서만 선택할 수 있어요. 블록버스터 영화, 대중성과 흥행을 노리는 상업영화가 선택지 대부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볼 때 함께 보거나 TV 영화 채널, 직접 다운로드 해서 보는 게 나머지 선택지가 되는데 그 퍼센티지가 크진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독립, 예술영화를 보고 나만의 취향을 만들어 가긴 힘들겠죠.

영화 제작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우선 올해는 영화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서로가 추천하는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진주같은영화제에 참여해 영화제 경험도 해보고, 연말에는 우리가 선정한 영화로 상영회도 진행하기로 했죠. 동아리장도 뽑고 우리가 볼 영화와 모임 날짜도 친구들이 직접 정하며 동아리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6월에는 나루시마 이즈루 감독의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7월에는 백승화 감독의 <오목소녀>, 8월에는 이와이 슌지 감독의 <러브레터>를 봤지요. 첫 영화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를 보고 나서는 SNS 게시물로 소감을 정리했습니다. 모둠을 나눠서 서로의 감상을 공유하고 이를 인스타그램 활동지에 그림과 글, 해시태그로 정리해봤죠.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 낯설고 어색한 부분들도 있었죠.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영화를 만났습니다.



7월 <오목소녀> 관람 후에는 포스트잇으로 소감을 정리해서 공유했습니다. '역지로 이야기를 풀어가려는 느낌이었다', '별거 아닌 거로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전달되었다' 등 솔직한 감상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주인공 이바둑처럼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00 소년/소녀'를 만들어봤습니다. 친구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캐릭터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가상의 영웅을 만들어 그에게 시련(!)을 주기도 했어요. 각자가 만들어낸 멋진 소년/소녀를 소개하고 그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가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6, 7월 모임에서는 영화 감상 활동을 미디어센터 담당자가 준비했습니다. 소감과 생각이 이야기로 흘러가거나, 학교 숙제처럼 딱딱한 글쓰기 숙제가 되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래서 영화에 맞춰서 포인트가 있는 활동지를 제작했죠. 그냥 이야기만 할 줄 알았는데 안 해봤던 걸 해봐서 재미있었다는 친구들의 평가가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주인이 되는 동아리인 만큼 담당자의 개입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8월에는 <러브레터>를 보고 나서 친구들끼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몇 번 만나서 친해진 친구들이 스스로 감상을 공유하고 영화에 대해 이야기 했죠. 두 시간 영화 보고 또 한 시간 동안 앉아서 말하는 게 힘들었을 텐데도 친구들은 지친 기색 없이 진지하게 참여했습니다.

영화 감상의 꽃은 영화제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영화를 즐기는 친구들에게 더 재미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1월에 진행하는 진주같은영화제에서 청소년 섹션 상영작을 선정하고 직접 무비토크도 진행하게 된 거죠. 간단하게 진주같은영화제에 대한 설명과 영화제 프로그래밍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친구들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담당자는 타깃과 시간대 정도만 같이 결정하고, 영화 선정은 전적으로 친구들이 진행했습니다. 열심히 검색하고 열심히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고 싶은 영화 설문 조사도 했어요.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고, 같이 보고 싶은 영화를 선정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설문에서 나온 영화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다시 논의한 끝에, 최종 결정된 영화는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로마의 휴일>. 무겁지 않은 소재의 영화, 관객이 영화 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영화, 주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영화라는, 이 까다로운 조건들을 갖춘 영화를 친구들이 찾아냈습니다. 21세기에 태어난 친구들이 1953년 영화를 선정한 것,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실제로 친구들이 선정한 상영작은 진주같은영화제에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고전 영화를 다시 보고 싶은 분들, 오드리 헵번을 큰 스크린으로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보러 오셨거든요.

친구들이 준비한 무비토크도 화제였습니다. 김아진, 문주영 친구가 무비토크를 진행했는데요. 관객들에게 동아리와 영화 선정 과정을 설명하고, 영화 뒷이야기들을 소개했습니다. 두 친구는 이 토크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영화관에 와서 대본을 짜고 멘트를 연습했어요. 탄탄히 준비한 덕분에 상영관에서 떨지 않고 침착하게 잘할 수 있었습니다. 관객들에게 소감을 묻고, 직접 찾아가서 마이크를 건네는 적극성까지 보이면서 말이죠. 관객들도 설문지에 '색다른 시도를 한 것 같아서 재미있었다', '당당하고 열정적인 청소년들의 모습이 멋있었다', '발표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늘리면 더 좋겠다' 등등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900원 영화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영화제

- *상영일: 2019년 1월 12일 토요일
- *상영장소: 진주시민미디어센터
경상대학교정문 건너편 해장군 건물 3층
- *상영작
13시 <빌리 엘리어트>
16시 <심 스트리트>
전 작품 무료 관람
- *문의: 진주시민미디어센터 055.748.7306
오픈카톡 @900원영화제

주최:주관/진주같은 청소년 영화동아리 후원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진주시민미디어센터,진주교육공동체 협

영화와 함께 커가는 친구들

진주같은영화제를 경험한 친구들은 이제 더 신나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900원 영화제-집에서 가장 가까운 영화제'입니다. 버스만 타고 와서 즐길 수 있는 영화제인데, 진주 지역 시내버스 청소년 요금이 900원이라서 '900원 영화제'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목에서 영화제의 모든 것이 표현되는, 참신한 제목이지 않나요? 거기다 이번에는 영화제 진행과 상영 전체를 동아리 친구들이 직접 할 예정입니다. 홍보도 친구들이 하고 있어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영화제 포스터로 바꾸고, 영화제 리더 필름으로 쓸 영상도 촬영해오고, 거리에 포스터도 붙이면서 행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인터뷰 기사에서 봤는데 프랑스에서는 연회비 제도로 극장이 운영되면서 관객들이 영화관을 자주 찾게 되고, 그러면서 경험을 쌓아 지속해서 영화를 보는 층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경험을 쌓는 중입니다. 멀티플렉스에서 상영하지 않는 영화들을 찾아보고, 영화로 할 수 있는 다른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 경험들은 친구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친구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취향을 찾아 더 즐거운 일을 하게 되겠죠. 척박한 지역에서 친구들이 그 '가능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센터는 지역의 어른들과 함께 이 친구들을 도울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먼 곳에서 지지와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두센터와 함께 가는 사람들

한누리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상영담당)

도담도담시네마

시민참여프로그램의 시작. 도담도담시네마는 2013년도 사업을 고민하던 중,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상영담당자분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어 진행한 사업이다. 관객 중에는 보고 싶은 영화를 추천하거나 영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가끔 눈에 띄었던지라 가능성이 보인다고 생각했다. 선부른 생각이었을까. 어쨌든 처음엔 자주 보이는 관객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참여의사를 여쭙고 모임을 만들었다.

그 이름도 거창한 상영기획위원회

영화과를 졸업했지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청년, 영화동호회 열혈회원인 선생님, 그저 영화를 좋아하는 중년여성 두 분까지, 총 4분(현재는 5분이 활동하고 있다)이 첫 '상영기획위원회'이다. 이분들을 통해 '도담도담시네마'라는 상영회 이름도 지어졌다.

분기별 회의를 통해 이전 상영회 평가와 관객 관람평을 공유하고, 다음 분기 상영회 주제를 정한다. 각자 주제들을 생각해오면 논의와 조율을 통해 선정한다. 한 가지 장르로 통일될만한 주제는 피하는 편이다. 이후 매달 주제에 맞춰 추천작 전달을 요청 드리면, 전화나 메일을 통해 후보작들을 보내주신다. 대부분 저녁에 참석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여빈도가 몰리지 않게 고려해서 배치한다. 회의 참석 시에는 소정의 회의비를 지급하고 있고, 센터 극장에서 개봉하는 유료개봉작 티켓과 소식지를 매달 전달하여 홍보도 함께 요청 드린다. 추천한 작품을 관객에게 직접 소개하기도 하는데, 소개와 스포일러의 경계에서 고민하시곤 한다.



벌써 육년

이쯤에서 잠시 상영회 소개를 하자면, 도담도담시네마는 가능한 많은 시민이 센터를 방문하도록 무료로 상영회를 진행한다. 센터가 익숙해지다 보면 유료개봉작도 보러 오시거나 상영기획위원회에 관심을 보이고, 또 다른 사업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매달 상영회 주제에 맞는 영화 6편을 상영하고 있고, 너무 상업적인 색깔이 짙은 영화는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는 편이다. 상영은 3주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진행한다. 지난 영화들을 상영하는지라 젊은 관객보다는 중년, 어르신 관객들이 더 많다. 특히 오전 시간에는 매주 보이는 VIP 어르신 관객들이 많다. 작년부터는 매달 첫 번째 오전 상영작으로 고전영화를 상영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가장 높은 편이다.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지만 몇몇 분들은 하반기쯤 되면 참여도가 떨어진다. 예상 못 한 일은 아니지만, 워낙 소수의 모임이라 그 몇몇 분들의 역할이 크다. 어디까지 센터에서 참여를 독려해야 하는지 애매했고,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닌지 조심스러울 때도 많았다.

이렇게 1년을 겪어보니 본인이 자원해서 참여하는지, 영화 취향이 도담도담시네마와 잘 어울리는지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매년 공개모집으로 상영기획위원들을 선정한다. 참여 신청서에는 매달 참여가 가능한지, 어느 시간대가 편한지, 본인이 하고 싶은 상영회 주제와 그에 맞는 추천작들을 적는 칸이 있다. 가끔 영화를 추천하는 관객들이 있어 이벤트로 관객들을 대상으로 영화 추천을 받아 상영한 적도 있었는데, 엄청 흥행했던 상업영화를 추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조금 놀랐다. <해운대>를 많이 좋아하시더라.

'내가 추천한 영화를 극장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기회
11월 도담도담시네마에서는 관객 추천 영화를 상영합니다.

당신의 인생영화를 추천해주세요



대상 모두극장 관객 **기간** 10월 14일까지
방법 엽서에 적어 안내데스크 추천함에 넣어주세요
혜택 모두극장 관람권 4장 2만원 상당 / 선정되신 분에 한해 한정

* 상영기획위원회에서 6편을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선정되신 분에 한해 연락을 드리며, 11월 소식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상영기획위원 선정 시에는 남녀성비, 연령대를 최대한 골고루 배치 하려고 한다. 원주를 떠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 활동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최대 2년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정했다.

상영기획위원은 관객들의 관람평이 계속 활동하고 싶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고 한다. 물론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다. 관객 수에 따라 일희일비하게 되기도 하고, 영화를 볼 때 관객들의 반응을 살피게 되어 편하게 즐길 수만은 없었다. 그리고 이미 상영한 영화들이 많아 해가 지날수록 추천작을 고르기가 어렵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3년 전에 상영한 작품은 다시 상영 해도 괜찮다는 기준도 생겼다.

상영기획위원 중에는 영화 추천을 안 하시거나, 중도에 그만두는 분들이 매년 한 분씩은 있었는데, 올해는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 짐작하기로는 참여 초기부터 홍보물에 추천자명을 공개 하면서 책임감이 같이 커지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올해는 활동했던 내용이나 상영작 추천사, 관객들의 관람평 등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활동가 기록용으로 기록집을 만들려고 한다. 내년부터는 오픈강좌로 영화읽기, 평론, 영화 리뷰 등 관련 교육을 상영기획위원회 활동과 함께 진행하면 어떨까 싶다. 교육 후에 센터 정기개봉작 리뷰를 작성하는 기회로 이어져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래도 돌아보니 수확은 있었다. 상영기획위원 참여자 중 세 분은 옥상영화제, 여성영화제 스태프로 활동했고, 한 분은 학부모 모임에서 연말 상영회를 여시기도 한다. 꼭 센터에서의 활동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활동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생겨나길 기대한다.

원주옥상영화제

원주옥상영화제는 2017년을 시작으로 이제 2회를 마친 영화제이다. 여름밤 탁 트인 옥상에서 영화를 즐기는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원주 청년들이 만드는 영화제이다. 8월 마지막 주 4일 동안 진행되며, 올해는 강원단편선, 장편, 단편섹션, 모두밤샘 섹션 등 총 9섹션, 21편의 영화를 상영했다. 상영 외에도 개막공연, 감독과의 대화, 시네토크, 옥상맥주 등 부대행사가 진행됐고, 굿즈와 먹거리 판매 부스도 마련했다.

모두센터인

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원주에서 영화제를 한번 만들어나 보자'는 명목 아래 청년들을 불러 모아 기획단이 꾸려졌다. 모두센터에서 활동했던 구 상영기획위원들, 구 인턴들, 상영동아리 회장, 시민감독, 영화제 자원활동가 경험자들이다. 오랜 시간을 거쳐 센터와 인연을 맺고 있고, 그들의 강점을 알고 있어 영화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다. 전원 공개모집으로 시민참여영화제를 만든다는 건 아직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다.

작년에 활동한 기획단 중 반 이상은 올해도 함께 했다. 그래서 작년과는 다른 시민프로그램과 교육을 진행해야 했다. 작년에는 홍수영 멘토님이 기획단 회의를 참관, 멘토링을 받는 방식으로 영화제의 방향을 잡아갔고, 올해는 좀 더 구체적인 실무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기에 서울독립영화제 김지은 사무국장님을 통해 실제 영화제 사무국 업무들과 사례들을 배웠다. 작년에 미처 하지 못했던 업무들을 알게 되었고, 배우면서 영화제 준비에 반영한 것들이 꽤 있다.

그리고 올해는 교육 자료들과 활동 기록을 정리하여 내부 지침서를 만들었다. 매년 같은 교육을 다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후 새롭게 참여하는 기획단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2017 원주옥상영화제 스태프 멘토링 - 영화제 회의 참관 및 멘토링

강사: 홍수영 (전 인디포럼, 인디다큐페스티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사무국장)

	주제	내용
1	영화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원 각자의 영화제상에 대한 공유 다양한 영화에 대한 욕구 해소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영화에 대한 상영기획 제공, 지속적인 상영에 대한 전망과 같은 기본 원칙 확인 3일간 6회 심야상영, 이중 1회는 단편독립영화 섹션으로 구성에 합의(가안)
2	프로그래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영하고 싶은 영화 추천 영화제 네이밍 대략의 프로그래밍과 부대행사 기획 영화제 실무 구성에 대한 이해와 역할 분담 메인 디자인 컨셉 논의
3	특강: 영화제 홍보의 모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규모에 맞는 홍보의 실제에 대한 이해 서울독립영화제 사례를 중심으로
4	홍보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기획안 마련 (홍보물의 종류, 매체 홍보안, 일정, 기념품 등에 대한 기획과 확정) 상영작 확정 부대행사 확정
5	실무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영작 선정에 따른 업무진행 상영작 섭외 및 수급 계획 홍보 진행 기타 실무
6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영본 확인 기술사항 점검(상영, 부대행사 기술 시스템 등) 부스 운영 및 공간 배치 행사장 시뮬레이션 영화제에 필요한 사무용품부터 기타 소품까지 확인, 수급

2018 원주옥상영화제 스태프 강의 - 영화제 사무국 업무내용 및 구체 사례

강사: 김지은 (현 서울독립영화제 사무국장)

	주제	내용
1	프로젝트 일정 및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일정 : 공적지원금, 참고사항 예산 : 예산항목의 종류, 수입항목, 지출항목, 예산처리 스태프 구성 : 조직도 및 주요 역할 영화 프로그래밍 : 영화제 기획서 작성, 프로그래밍 개요
2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영활동의 프로세스 상영 기획 프로그래밍 : 테마와 작품 선정, 경쟁 영화제와 비경쟁 영화제, 프로그램 실무, 상영시간표 및 섹션 구성
3	프로모션 및 이벤트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모션 : 이벤트 기획, 시장조사, 프로모션 제안서, 후원/협찬 주요사항
4	홍보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팀의 역할 : 홍보팀의 업무분장 홍보의 종류 : 보도자료, 오프라인 홍보, 온라인 홍보 홍보 보도자료 작성법
5	자원활동가 운영 및 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활동가 : 운영 흐름, 운영 계획, 세부 업무, 주요 유의사항, 지원서 양식
6	현장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객과의 대화 준비 : 시간배분, 준비사항, 모더레이터 안내사항 부대행사 : 개/폐막식, 관객과의 대화, 기획전, 시네토크, 마스터 클래스, 토크포럼/세미나 현장운영 : 준비물
7	영화제 현장 체크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사사고 : 사고 종류, 복구 가이드, 문제 발생 시 대처사항 상영 : 상영테스트, 입장안내, 야외상영 참고사항 행사종료 후 체크리스트 : 행사 기록, 영화제 평가



작년에는 전미협 지원사업, 크라우드 펀딩 후원금 외에 조금씩 끌어와서 최소한의 사업비로 진행했다. 그만큼 외부 인력을 줄이고 스태프들이 직접 한 일들이 많다. 올해는 영상위원회 지원을 통해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여, 기획단원들에게 소정의 활동비 정도는 지급할 수 있었고, 기획단 중 상근이 가능한 스태프 1명을 선정하여 2달간 근무를 했다. 상근스태프는 관객으로 센터를 알게 되면서 상영기획위원 - 원주옥상영화제 기획단 - 원주여성영화제 스태프로 이어졌고, 현재는 공동체라디오 DJ로도 참여하는 등 센터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옥상의 이모저모

3월부터 모여 초반에는 2주에 1회, 중반부터는 주 1회 기획단 회의를 진행했다. 우선 올해는 작년 영화제 만족도의 40% 정도 기여한 미로시장 옥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넓은 면적, 최고의 접근성, 우리가 원하는 분위기를 갖추고 있던 미로시장 옥상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오랜 고민과 포기와의 타협 끝에 문화원 옥상을 구했다.

우리 영화제는 기획단 전원이 스크리너를 보고 영화를 선택한다. 역시나 약속한 일자에 스크리너를 보고 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 계획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개선이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되어 내년에는 프로그램팀에서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다른 팀에서 의견을 보태는 정도로 하여 결정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먼저 개막작으로는 지역 영화인들이 지역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강원단편선> 섹션으로 구성했다. 흥행보다는 의미를 선택한 것이다. 영화제 초기 기획단계부터 우리 영화제에서 지역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작년에는 강원영상위원회 제작지원작 스크리너를 받아 선정했기에 그래도 비교적 알려지고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많았다. 올해는 참여 기회를 더욱 넓혀보고자 공개모집을 통해 강원권 작품을 선정했고, 심사위원도 섭외하여 객관성을 더했다. '이제 2회를 맞는 영화제에서 공모는 시기상조였다

고, 강원도에는 영상인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며 신청률이 적어 실망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공모를 하지 않았다면 만나볼 수 없는 좋은 작품들을 발굴하게 되었다. 이후에 공모를 한다면, 상금이 없는 대신 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제작지원을 하거나 대학생 학과기간에 집중 홍보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상영작은 독립예술영화 위주로 선정한다. 난해하고 어렵다는 선입견이 조금은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에 비교적 쉽게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작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특히 원주에서 단편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게다가 야외상영은 실내상영보다 출입이 자유롭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년보다 단편영화를 더 많이 배치했다.

단편섹션은 가능한 80분 이내, 12세 이상 관람가 이하로 정했다.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인 소재는 가능한 10시 이후 섹션과 밤샘프로그램인 <모두밤샘> 섹션으로 구성했다. 단편영화는 주요 단편영화 배급사 홈페이지에서 작품들을 검색하는 것이 가장 수월했고, 다른 영화제에서의 관람 시 엔딩크레딧에서 배급사 정보를 찾아 기록해두기도 했고, 국내 영화제를 거쳐 연락이 닿은 경우도 있었다. 참고로 V SCREEN 사이트를 통해 몇몇 작품은 배급사 스크리너 요청을 하지 않고 볼 수 있었다. 다만 기대를 걸고 있던 장편영화들을 개봉 전에 섭외하는 게 불가능했고, 야외상영인데 DCP 배급밖에 되지 않아 못한 경우도 있었다.

단편영화의 경우 영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여, 배급사로부터 EPK 영상을 받아 섹션별로 편집하여 홍보했고, 등급이 없는 작품이 대부분이라 배급사나 감독 측에 문의한 후 내부 등급을 설정하여 등급분류면제추천서 신청도 진행했다.

지원받은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는 굿즈 제작비는 크라우드 펀딩 후원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제공할 물품들은 협찬을 통해 지원받았다. 밤샘 프로그램 시 관객 증정용으로 필요한 간식, 홍보 이벤트 당첨자나 부대행사 참여자 증정품, 추위에 필요한 담요 등이 필요했고, 그에 맞춰 협찬 제안 요청을 했다. 부담가지 않는 선에서 요청 드려서 그런지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그래도 옥상영화제는 옥상에서 해야지

야외 영화제는 낭만적이지만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작년에는 4일 내내 날씨도 좋고, 장소도 좋고, 홍보물과 관객 반응까지. 여러모로 성공적이었다. 비 폭탄을 맞은 올해는 솔직히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분명 영화제 전주에 일기예보를 확인했을 땐 날씨가 좋았다는 거다. 하지만 태풍이 지나간 후 기상상태가 시시각각으로 변했고, 행사 전날 세팅을 해놓으려던 계획은 욕심이라는 걸 깨달았다.



행사 첫날, 기획단은 회의실에 모여 센터 상영관에서 진행할지, 관객들에게 우비를 제공하고 옥상에서 강행할지 고민 끝에 패기 있게 옥상에서 진행하기로 정했다. 3~5ml의 강수량은 그리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거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고, 그야말로 급작스런 폭우 속에 준비하며 관객들의 반응이 걱정됐지만, 다시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상황이었다.

비로 인해 훼손된 굿즈, 최소한의 전기만 사용해야 하는 상황, 준비도 거의 못 한 채 그저 폭우를 피해 천막 안에 모여 있는 스태프들. 지금 생각해도 답답하다. 그래도 천막과 파라솔을 빌릴 수 있는 스태프가 있었기에 다행이었다. 준비한 먹거리, 굿즈 판매 부스는 설치할 수도 없었으며, 스태프들이 직접 만든 네온사인, 알전구, 가랜드 설치는 사치였고, 최소한의 조명만 켜 채 우중충한 분위기 속에서 개막식이 진행됐다. '전기문제로 인해 상영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지만, 다행히 상영 직전에 수습이 되어 무사히 진행됐다. 우비를 쓰고 영화를 본 관객들(화면이 가려 뒤쪽에만 천막을 칠 수 있다), 파라솔도 모자라 김장비닐까지 쓰고 공연을 한 뮤지션, 우산을 쓰고 감독과의 대화에 참여한 감독들. 그 생소한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8월 말 영화제 기간에는 폭우성 비가 많은 편이라, 지난 5년간의 날씨 데이터를 체크하여 기간을 다시 논의해보기로 했다. 스태프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관객들에게 좋은 상영장소를 확보해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날씨 예측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비책이 더 중요하다. 전기선과 장비들을 물이 들어가지 않게 잘 감싸고, 우비, 김장비닐, 천막, 파라솔, 수건 등 준비할 수 있는 물품은 미리 구비하거나 바로 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두는 것이 좋다.

올해는 평가가 필요한 세부 문항들을 포함해 설문지를 만들었다. 최대한 많은 관객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영화제 굿즈 업서를 증명하며 매년 설문 작성을 요청했다. 스태프들이 판단할 수 없는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했고 중간중간 관객 의견들을 체크했다.

주변 지인의 소개와 온라인 홍보가 가장 효과적이었고, 홍보물을 보고 흥미가 생겨서 방문한 경우가 가장 높았다. 홍보물 디자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면서! 관객들이 홍보물을

많이 확인한 동네 파악도 가능했다. 20대 관객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다. 상영작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독립영화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다는 분들도 계셨다. 외국인을 위한 영어 자막 상영본을 요청하는 의견, 장소 접근성, 행사 진행 과정, 굿즈에 대한 만족도도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 계속할 수 있을까?

"당분간 서로 보지 말자"는 농담 섞인 말을 내뱉으며 영화제가 마무리되었다. 도담도담시네마 상영기획위원과는 달리 영화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종류의 문제가 있다. 우리 영화제처럼 활동가들이 지속해서 활동하는 경우, 그저 취미활동이 아닌, 점차 경험이 쌓이고 활동량이 늘어날 경우,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인건비다.

*"상영활동가의 참여율은 어디까지가 적당한 선인가?
매년 뽑을 것인가, 지속해서 활동을 끌어갈 것인가?
지속한다면 전문적인 지점까지 끌어올리는 시도가 바람직한 것인가?"*

어쩌면 시민참여프로그램치고는 규모를 크게 잡았던 게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이상 사업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야 스태프들의 업무가 많은 만큼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1년에 2달만 상근 스태프를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말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겠지만, 우선은 1년에 활동가 1명씩만 찾자는 마음이다. 작년에 1명, 올해 1명, 내년에 1명. 이렇게 발굴해나가다 보면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 손으로 영화문화를 만든다

임종우
(성남시민영화기획단 활동가)

성남시민영화기획단이란?

성남시민영화기획단은 2016년에 시작되었다. 성남시민으로 구성된 영화중심 문화기획 집단이다. 2016년 제1회 성남사는영화제를 기획, 집행하면서 모였고, 2017년에는 제2회 성남사는영화제를, 그리고 2018년에는 제3회 성남사는영화제와 영화제 여름특별상영회를 개최했다. 그 외에 영화제 참관, 영화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인디다큐페스티벌2018 참관, 인디포럼2018 참관, 영화 해설 및 모더레이터 교육, 한국 독립다큐멘터리의 역사 교육, 여름특별상영회, 성남사는영화제 총 여섯 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성남시민영화기획단의 활동

다양한 영화제와 만나기

앞서 성남시민영화기획단(이하 기획단)이 2018년에 여섯 가지 프로그램을 경험하였다고 말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은 단연 성남사는영화제이다. 영화제를 진행하기 위해 1년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한다고 볼 수 있다. 영화제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상영작을 구성하는 일, 다시 말해 영화제 프로그래밍이다. 성남사는영화제는 초청형/비경쟁 영화제이기 때문에 작품 수급이 쉽지 않다. 따라서 기획단은 1년간 주요 독립영화제에 직접 참여하여 상영작을 탐색했다. 기획단 구성원이 함께 참여한 영화제는 인디다큐페스티벌2018과 인디포럼2018이다. 그 외에 기획단 개인이 참석한 영화제로는 미장센단편영화제, 서울환경영화

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EBS국제다큐영화제, DMZ국제다큐영화제 등이 있다.

- 인디다큐페스티벌2018 참관기

인디다큐페스티벌은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주최하는 독립다큐멘터리 영화제다. 기획단은 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해 권아람 감독의 <퀴어의 방>과 이솜이 감독의 <관찰과 기억>을 관람했다. <퀴어의 방>은 성소수자에 대한 작품이고, <관찰과 기억>은 자신이 경험한 성추행의 기억을 재구성한 시적 다큐멘터리이다. 이러한 기획단의 영화제 경험은 추후 여름특별상영회 주제를 여성영화로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 인디포럼2018 참관기

인디포럼은 인디포럼 작가회의가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영화제이다. 기획단은 영화제에 참여해 박배일 감독의 <소성리>, 강유가람 감독의 <시국페미>, 문창현 감독의 <기프실> 등을 보았다. <소성리>는 사드 문제를 다룬 액티비즘 다큐멘터리이고, <시국페미>는 탄핵정국에서 발생한 여성혐오와 이에 대항했던 페미니즘 운동을 기록한 영화다. 그리고 <기프실>은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정비 사업 문제를 개인사적 시선으로 담아낸 다큐멘터리다. 인디포럼 관람을 통해 기획단은 영화제와 기획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소성리>를 통해 사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성남사는영화제 2018에서 허철영 감독의 <말해의 사계절>을 상영할 수 있었고, <시국페미> 또한 본 영화제 강유가람 감독전에서 소개하였다. 이렇게 동시대 독립영화제를 마주하는 체험을 통해 지역 독립영화제로서 성남사는영화제의 정체성과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영화교육 진행하기

- 관객과의 대화,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단은 구성원의 실질적 성장을 위해 교육을 주체적으로 개발하고 진행하였다. 크게 두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 교육 <관객과의 대화,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필자가 직접 진행한 기획이다. 영화제와 기획 상영은 영화를 연출한 감독과 함께 '관객과의 대화 (GV, Guest Visit)'라는 부대행사를 종종 진행한다. 하지만 기획단과 같이 비전문가가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이벤트이기도 하다. 그래서 관객과의 대화 경험이 많은 필자가 영화 해설 및 모더레이터 교육을 진행했다. 문화매개이론과 문화번역이론 소개를 통해 왜 우리가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았고, 행사 진행을 위한 실무적인 기술 또한 전달하였다. <관객과의 대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은 기획단 구성원이 여름특별상영회와 성남사는영화제2018 부대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 한국 독립다큐멘터리의 역사

앞서 기획단이 인디다큐페스티벌2018과 인디포럼2018에 참관하였다고 했다. 영화제에서 관람한 영화들(<귀어의 방>, <관찰과 기억>, <소성리>, <시국페미>, <기프실> 등)의 공통점이 있다. 모두 동시대 한국 독립다큐멘터리다. 하지만 기획단에게 이 영화들은 흥미로우면서도 어려웠다. 왜냐하면, 서사를 전개하는 언어가 일반적인 상업 극영화와 다르고 정치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 독립다큐멘터리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을 잘 모르기도 했다. 그래서 기획단은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소속 영화연구자 권은혜를 초청해 <한국 독립다큐멘터리의 역사> 교육을 기획하였다. 교육을 통해 기획단 구성원은 1980년대부터 2010년대를 관통하는 한국 독립다큐멘터리의 경향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영화 상영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 성남사는영화제2018 여름특별상영회를 중심으로

성남사는영화제는 매년 가을에 진행되는 지역 독립영화제다. 하지만 규모가 작고,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는 데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기획단은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독립영화 정기 상영회를 준비하였다. 주제는 여성영화였다. 앞서 말했듯 인디다큐페스티벌 2018의 경험이 이끌어낸 결과다. 기획단 구성원 두 명이 짝을 이루어 네 번의 상영회를 진행했다(현재 성남시민영화기획단은 8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영작은 박영임 감독의 <이름 없는 자들의 이름>, 김보람 감독의 <피의 연대기>, 전고운 감독의 <소공녀> 그리고 (또 다른) 김보람 감독의 <개의 역사>였다. 세 편의 다큐멘터리와 한 편의 극영화를 소개한 것이다. 영화해설과 관객과의 대화 또한 병행했다.

영화제를 만들기

성남사는영화제2018은 10월 10일, 11일, 17일 3일간 열렸다. 상영작은 강유가람 감독의 <모래>와 <시국페미>, 장아람 감독의 <여자의 아내>, 이종훈 감독의 <별이 빛나는 밤에>,



김도영 감독의 <자유연기>, 허철녕 감독의 <말해의 사계절> 그리고 유지영, 정가영, 김태진 감독의 옴니버스 영화 <너와 극장에서>였다. <모래>는 강유가람 감독 본인의 가족 이야기를 담은 사적 다큐멘터리이다. <여자의 아내>는 트랜스젠더를 재현한 퀴어 극영화이고, <별이 빛나는 밤에>는 가상의 노인의 삶을 구성한 애니메이션이다. <자유연기>는 출산으로 인해 연기 활동을 그만둔 한 여배우에 대한 이야기이다. <너와 극장에서>는 영화관을 메인 키워드로 구성된 세 편의 단편영화를 담은 옴니버스식 극영화다. 이렇게 본 영화제는 감독전(강유가람), 단편전(<여자의 아내>, <별이 빛나는 밤에>, <자유연기>), 극영화 장편, 다큐멘터리 장편 등 다채로운 구성을 취했다. 특히 감독전은 이번 영화제에 새롭게 도입되었고, 독립 애니메이션(<별이 빛나는 밤에>) 또한 영화제를 통해 처음 성남시민을 만났다. 성남사는영화제의 특징점은, 성남시민영화기획단이 영화제의 기획/운영, 홍보, 기술상영 등을 총괄한다는 점이다. 기획단이 (외부의 간섭 없이) 직접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직접 상영하고, 직접 부대행사를 진행하며, 직접 성남시민 관객의 피드백을 받는다.

어려움을 경험하다 - 우리와 '다른' 관객

하지만, 성남사는영화제와 여름특별상영회의 관객 반응이 늘 좋지는 않았다. 박영임 감독의 <이름 없는 자들의 이름>은 실험 다큐멘터리로 범주화된다. 인터뷰가 상당히 길고 구성이 단조롭다(이는 전적으로 감독이 의도한 것이다). 하지만 몇몇 관객이 이러한 형식을 취한 해당 작품을 많이 어려워했다. 어렵기 때문에 지루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필자가 영화해설을 진행해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피드백을 받기도 하였다. 가장 큰 사건은 성남사는영화제2018에서 일어났다. <말해의 사계절>을 상영할 때 예상치 못한 관객의 '반발'이 있었다. 노인 관객이 많았는데, 해당 작품의 정치성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거나 자막이 작아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절반의 관객이 상영 도중 극장을 떠났다. 기획단은 상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우리와 '다른' 관객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기도 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최근 기획단은 회의를 통해 몇 가지 개선 사항을 설정했다. 첫 번째, 더 많은 영화제에 다녀야 한다. 다양한 영화제에 참여해야 상영작 선정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두 번째, 영화에 대한 학습을 보다 심도 있게 해야 한다. 영화라는 매체를 더 잘 알아야 영화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세 번째, 노인과 청소년 등 다양한 성남시민 관객을 생각하는 영화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름 없는 자들의 이름>과 <말해의 사계절> 상영에서 받은 피드백이 준 영향이다. 기존 성남미디어센터 방문객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성을 추구하되, 동시에 보다 선명한 정치성과 메시지를 구성하는 일 또한 요구된다. 많은 사람이 성남시민영화기획단의 성장을 지켜봐 주었으면 한다.

무명씨네라는 이름으로

이하늘
(무명씨네)

상영활동의 시작

전주시민미디어센터(이하 영시미)에서 영화제작동아리인 '창작집단 나이테' 활동을 막 시작했을 때였다. 영시미의 동아리 담당이었던 센터 선생님과 같은 동아리에서 결이 같은 5명의 친구들은 '나이테 상영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만의 작은 영화제를 하기로 뭉쳤다. 전주의 전통시장 중 한 곳인 남부시장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 청년몰. 그곳에서 우리의 상영활동은 시작되었다. 밤샘영화제 '나의 n번째 사춘기'. 무박이일로 밤을 새우며 장편독립예술영화를 연달아 보는 행사는 우리의 예상보다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우리가 기획한 영화제에서 관객분들이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



시민영화프로그램 교육

2016년 12월, 전주에서 시민영화프로그램 교육이 처음 개설되었다. '창작집단 나이테'의 동아리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특강이 진행되었는데, '나의 n번째 사춘기'를 무턱대고 치르고 난 이후 상영기획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눌 때였다. 영시미 박진영 선생님의 기획으로 두 차례 특강이 진행되었고, 막 상영활동을 시작한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이어서 우리의 수업 집중도는 높았다. 강의는 모두를위한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이하 모극장)의 김남훈 대표이사님이 진행하였다. 영화 산업의 주체를 관객으로 재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을 펼치는 관객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영화 환경이 너무도 빈약하고 그래서 우리 같은 상영활동가들이 공동체 상영을 기획하여 함께 영화를 보는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시민영화프로그램 교육은 이후 상설교육으로 개설되어 2017년 4월부터 9월까지 장기간으로 진행되었다. 시민영화프로그램 교육은 관객으로서 주어진 대로 영화를 보는 수동적인 영화제가 아니라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스스로 즐기고 나누는 시민들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영화제를 상상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영시미에서는 시민영화프로그램의 역할을 이해하고 어떻게 영화제를 기획·운영하는지 배우는 입문과정과 전주국제영화제 앵글 상영인 '폴링 인 전주-시민참여섹션'을 직접 진행하는 멘토링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영화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전반과 영화제에서 필요한 역할들, 영화 수급 방법, 모의 영화제 기획 등의 교육을 통해 활동가들 스스로 영화제를 기획,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혔고, 전주국제영화제와 협업을 통해 앵글 영화제인 전주국제영화제 '폴링 인 전주-시민참여섹션'에 실제 실습을 하였다.

'폴링 인 전주-시민참여섹션'에서 단편영화 프로그래밍 외에 GV 진행, 영화 해설, 전주 관객모임 간담회 등의 부대 행사를 교육생들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진행하였다. 교육이 장기



간으로 이루어지고 부대행사 전체를 교육생들끼리 치러야 해서 힘든 점들이 많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부대행사 중 '전주 관객모임 간담회'는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관객 모임들이 활동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서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게 되어 행사 기획·진행자로서 많은 소득이 있었다.

다만 '폴링 인 전주-시민참여섹션'을 진행하며 아쉬웠던 점은 영화제 측이 시민영화프로그램 팀과 스킨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정해져 있던 일정이 영화제 측의 문제로 미뤄지면서 교육생들이 원래 예정대로 교육을 마치지 못하고 다른 일정을 희생해 가며 행사를 치렀고, 다소 인력 동원의 측면으로 교육생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 또 교육생들도 미숙하여 GV 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못한 점이 안타까웠다. 현장에서 강사분의 멘토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 2018년도 시민영화프로그램 교육도 유사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전년도보다 참여 인원이 적어서 시민참여섹션 행사가 다소 축소되어서 치러졌다고 한다. 내년에 시민영화프로그램 교육에서 실습을 한다면 교육생들이 직접 영화제를 만들어서 진행해 보는 것이 어찌던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영화공동체 무명씨네

밤샘영화제 '나의 n번째 사춘기' 후 상영활동에 재미를 느낀 '나이테 상영단'은 그해 동아리 연말 행사인 '나이테의 밤'을 한국단편영화를 상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다. '우리칭춘 독립영화'라는 이름으로 단편영화 세 작품과 감독님들을 초청해 토크콘서트를 하고 밴드 공연을 부대행사로 마련하였고, 상영단의 각 멤버들은 역할을 분배하여 상영회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가 기틀이 되어 2017년 3월, '우리가 보고 싶은 영화, 함께 보자.'라는 취지로 '무명씨네'를 결성하여 공동체 상영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다.



무명씨네라는 이름에는 '無名'의 작품, 감독, 배우의 작품을 상영하자는 뜻과 영화관에서 암전이 된 후 '無明' 상태의 이미지를 담았으며, '이름 없는 모두의 영화관'이라는 슬로건을 표방하였다. 공동체상영을 기획하는 것 외에 영화를 매개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도모하며 지역의 커뮤니티 시네마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기획 상영회

기획 상영회는 상업 영화관에서 상영되지 못하는 독립예술영화와 단편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2017년에는 전주시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이하 전미협), 영시미의 지원을 받아 5번의 상영회를 진행하였고 2018년에는 전라북도와 전미협, 영시미의 지원으로 3번의 상영회를 진행하였다. 지역의 독립영화 상영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취향을 존중하는 영화 문화 형성과 지역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한 활동이다.



2017년 월별 기획 상영회

월	주제	내용
5월	빛이 없는 밤	'무명'씨네라는 이름에서 착안하여 기획한 상영회이다. 지하 주차장이라는 공간과 공포 장르의 단편 영화 상영이라는 기획이 잘 맞아떨어져 관객과 멤버 모두 만족했던 첫 상영회였다.
6월	노 임팩트 데이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영화 <노 임팩트 맨>을 상영하고 영화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실전적 모습을 멤버들과 관객들의 삶에서 찾아보는 관객토크를 진행하였다.
7월	지역단편과의 무비오작교	전주, 광주,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독들의 작품을 상영하고 지역에서 영화 만들기에 대한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하였다. 무명씨네가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단편 영화와 지역 감독들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오작교가 된 상영회였다.
8월	나의 n번째 사춘기 Ver.2	2016년 남부시장 청년몰에서 진행한 밤샘 영화제 '나의 n번째 사춘기'의 2회로 사춘기와 청춘에 관한 주제의 장편영화 3편을 연속 상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관객들과 편하게 밤을 지새우며 영화를 보며 놀기 위해 전주 중노송동 문화적 도시재생 게스트 하우스 '사철나무집'을 대관하여 영화제를 진행하였다.
11월	올해의 마지막 영화	무명씨네 2017년 마지막 상영회로 멤버들이 보고 싶은 단편영화 3편을 상영하고, 기존의 GV형식이 아닌 감독과 관객이 함께 앉아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감독과 관객이 더 밀접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2018년 월별 기획 상영회

월	주제	내용
6월	몸몸몸 : 나의 몸은 잘못이 없어!	'여성과 몸'이라는 주제로 김보람 감독의 <피의 연대기>를 상영했다. 김보람 감독과의 GV에서 관객들과 영화 제작 과정과 비하인드 스토리, 몸과 신체적 자유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시의성 있는 주제로 관객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던 상영회였다.
9월	나의 n번째 사춘기 Ver.3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무명씨네의 무박이일 밤샘 영화제로, '사춘기'라는 키워드에 적합한 영화를 '나의 n번째 사춘기' 영화제 기획단이 직접 선정하고 모더레이터를 하였다. 무명씨네의 첫 시작을 다시 느껴 보기 위해 1회 때와 동일한 장소,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에서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세 편의 장편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 마라톤을 진행하였고, 각 영화가 끝난 후 씨네토크, 라이브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마련했다.
11월	퇴근길 영화제	고된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단편영화와 함께 내일을 살 힘을 얻자는 기획으로, 다양한 주제의 섹션을 만들어 단편영화 15편을 상영하였다. 백미영 감독의 애니메이션 기획전과 올해 청룡영화제 단편영화상을 수상한 허지은 감독의 감독전이 관객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다.



관객모임 네트워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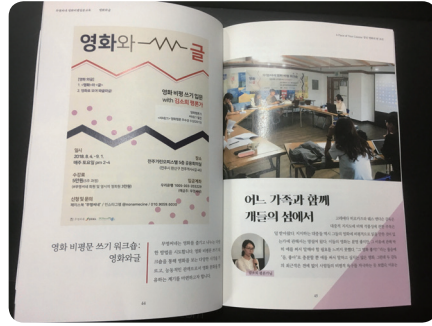
기획 상영 외에도 전주 지역의 영화 동아리, 관객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 9월에 열린 전주국제영화제 '폴링 인 전주-시민참여섹션'에 참가해 관객모임 간담회를 진행했고,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객모임 '씨네몽(영화리뷰모임)'과 '아모르(영화잡지발간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이후 2018년도에는 '씨네몽'의 회원들이 무명씨네 상영회의 시민 모더레이터로 활동했으며, '아모르'와 함께 한국 독립영화에 대한 프로젝트를 2019년 3월에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주, 전북 지역의 관객 활동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선진지 탐방

지역의 민간 독립영화전용관으로 공공의 영화관을 추구하는 대구 오오극장, 대안적 영화 유통망을 구축하고자 설립된 서울 모두를위한극장(모극장), 관객운동단체인 부산 모퉁이 극장과 같은 영화공동체라는 공동된 가치를 공유하는 선진지 탐방을 통해 무명씨네의 지향점을 확인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추천 일시정지시네마, 서울의 자체휴강시네마, 극장판, 에뮤시네마를 방문하여 지역의 소규모 극장의 활동 모습과 공간의 활용,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학습을 하며 전주의 커뮤니티 시네마의 모습을 꿈꾸었다.

영화 비평문 쓰기 워크숍

<씨네21> 영화평론 우수상을 받고 현재 필진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소희 평론가와 함께 영화 비평에 대해 알아보고, 비평문을 직접 써보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단순히 영화를 즐기는 수동적 관객을 넘어 영화를 보는 비판적 시각을 가진 관객을 개발하여 지역 관객 문화를 형성하고 개선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도로 교육을 개설하였다. 일반 시민들도 수강할 수 있게 하여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영화 관람의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교육을 통해 작성된 비평문은 매거진으로 제작하여 참여자들의 활동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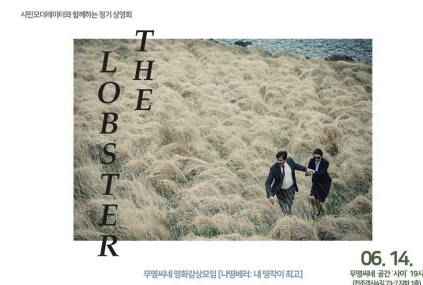


영화감상모임 운영

상영회의 일회성을 보완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영화 공동체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영화감상모임을 조직하였다. 2017년 10월, 11월 2회에 걸쳐 감상모임을 진행해 보았고 이를 발판 삼아 올해 1월 회원 모집을 하였고 2월부터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주 2회로 감상모임을 진행하였다. 올해 감상모임은 '나땀베려;내 땀작이 최고'라는 이름으로 영화감상모임 회원들이 각자의 인생 영화를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상영 후에는 영화를 선정한 회원이 직접 모더레이터 역할을 하며 회원들과 감상을 나누었다. 상영회를 바탕으로 한 영화 에세이를 작성해 공유하였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총 10편의 영화를 감상하였다.

앞으로의 활동

앞으로도 단편영화와 독립영화를 중심으로 꾸준히 지역 영화 상영회를 기획하면서 관객공동체를 개발, 육성하고자 한다. 또 무명씨네의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상영회를 진행하고 스크린 상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무명씨네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이다. 무명씨네 회원뿐만 아니라 지역 영화인,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매력적인 '아지트'-커뮤니티 시네마를 만들고 싶다.



발행일	2019년 2월
발행처	사단법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기획, 진행, 편집	김진숙, 김예은
글쓴이 (가나다순)	김남훈, 이하늘, 임종우, 조정주, 주재형, 한누리
디자인	손가희

사단법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주소 04626 서울 중구 퇴계로 36길 2 본관 4층

전화번호 070-4352-6379 **팩스** 070-7614-2206

홈페이지 www.krmedia.org

본 사례집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

www.krmedia.org